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9 vol.329

05

유럽 박물관 기행
오르세 미술관(Musée d'Orsay)
인상주의 그룹의 리더, 마네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Caro nome 사랑하는 그 이름…
리골레토 이야기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노라가 돌아왔다! '인형의 집 part II'

노라가 돌아왔다! '인형의 집 part II'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60 당신과 함께 60년 친구 부산MBC가 마련하는

클래식 슈퍼 콘서트

세계 속의 한국
클래식 월드 스타들이 펼치는
감동의 음악 항해

EURASIA OCEAN PHILHARMONIC ORCHESTRA

2019 부산사랑 음악회

부산 유라시아 그리고 북극항로

2019. 5. 26. Sun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차이콥스키 P. I. Tchaikovsky	슬라브 행진곡 작품31 Marche Slave, Op.31
차이콥스키 P. I. Tchaikovsky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35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차이콥스키 P. I. Tchaikovsky	교향곡 제5번 e단조 작품64 Symphony No.5 in e minor, Op.64

예술감독 **오충근** 지휘 Choong-Keun Oh | 연주 **유라시아오션필하모닉오케스트라** EOPO | 협연 **박지윤** 바이올린 Ji-Yoon Park

주최 부산 MBC
주관 부산 MBC 유라시아오션필하모닉오케스트라 추진위원회
후원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협찬 동성 모터스 송월타월 세운철강 HAEUNDAE GRAND HOTEL

문의 부산 MBC 051-760-1093
초대권신청 부산 MBC 홈페이지 www.busanmbc.co.kr
입장권 **전석무료** 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F. Händel- J. Halvorsen
W. A. Mozart
F. Danzi
A. Dvořák

예술감독 | 오충근
바이올린 | 박지윤 김재원
비올라 | 이승원
첼로 | 김민지
베이스 | 성민제
플루트 | 오신정
오보에 | 아오야마 사토키
클라리넷 | 백동훈
바순 | 최영진
호른 | 김홍박

EOPO 유라시아 오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CHAMBER MUSIC

세계 속의 한국 최정상 음악가의 만남

실내악으로의 초대

2019. 5. 27(Mon) 7:30pm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주 최 | 부산문화회관 부산MBC | 문의 및 예매 | 051-607-6000 www.bscc.or.kr
| 입장료 | 전석 3만원(초등학생 이상 입장가능)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제9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 가곡과 아리아의 밤 -

주 최 | 문 의 (사)부산사람 이태석기념사업회 http://www.johnlee.or.kr 051) 637-0125

후 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BNK 부산은행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 MBC KNN

무료관람 응모 NAVER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http://www.johnlee.or.kr 추첨 후 개별통지

* 본 공연은 '2019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행사보조사업' 지원 사업이며 음악회 후원금과 출연인 재능기부로 열립니다.

Sun&Fun Haeundae 특별기획공연

뮤지컬 갈라

THE SCENE 더씬

2019.6.8 |토| / 1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출연 / 김호영 / 리사 / 아트레볼루션

주최 Sun&Fun Haeundae 해운대 문화회관 HAEUNDAE CULTURAL CENTER 주관 : 아트레볼루션

관람제한 만 7세 이상 소요시간 약 90분

지정좌석 1층 - VIP석 40,000원 / R석 30,000원 / 2층 - A석 20,000원

예매 : 인터파크 단독판매

티켓할인 : 누림회원 • 초 • 중 • 고 • 단체 20명이상 30%, 장애인 • 국가유공자 50%

조기예매 ~ 5.10 (금)까지

누림회원 • 초 • 중 • 고 • 단체 20명이상 40%, 일반 30%, 장애인 • 국가유공자 50%

▶ 누림회원카드, 학생증, 장애인카드 확인 후 매표소에서 티켓 발부

THE 68TH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시리즈Ⅳ

말러, 죽음에서 희망으로

Symphony No. 2 in C minor 'Resurrection(부활)'

2019. 5.10.(금)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시리즈 Ⅳ
말러, 죽음에서 희망으로

예술감독 | 김원명

지휘자 | 백진현

SOP | 이윤경

M.SOP | 양송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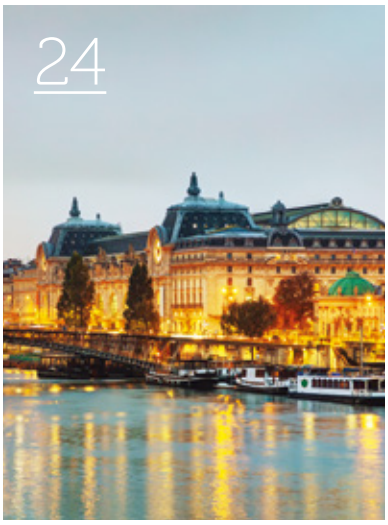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BRPO) | 대표 김일택

부산콘서트콰이어 | 합창지휘 전상철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을숙도문화회관 BRPO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BRPO)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예매 INTERPARK 티켓 1544-1555 | 입장권 1만원 |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서종칠 [을숙도문화회관의 '명품콘서트'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공연문의 051) 220-5805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5 2019 May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2019년 5월호 통권 329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황해순
편집주간 서정환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9년 4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08 COLUMN
극장장의 손 편지

10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노라가 돌아왔다! '인형의 집 Part 2'

14 SCHEDULE
5월 공연캘린더

18 INTERVIEW
부산시립극단 신임 예술감독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신임 수석지휘자 이명근

22 BACKSTAGE OPERA
Caro nome 사랑하는 그 이름…
리골레토 이야기

24 MUSEUM OF EUROPE
오르세 미술관 두 번째 이야기
인상주의 그룹의 리더, 마네

28 TRAVEL WITH YOU
근대 100년 역사의 보고
진해 근대문화투어

33 PREVIEW

40 ISSUE
5월 풍성한 문화예술축제의 현장

44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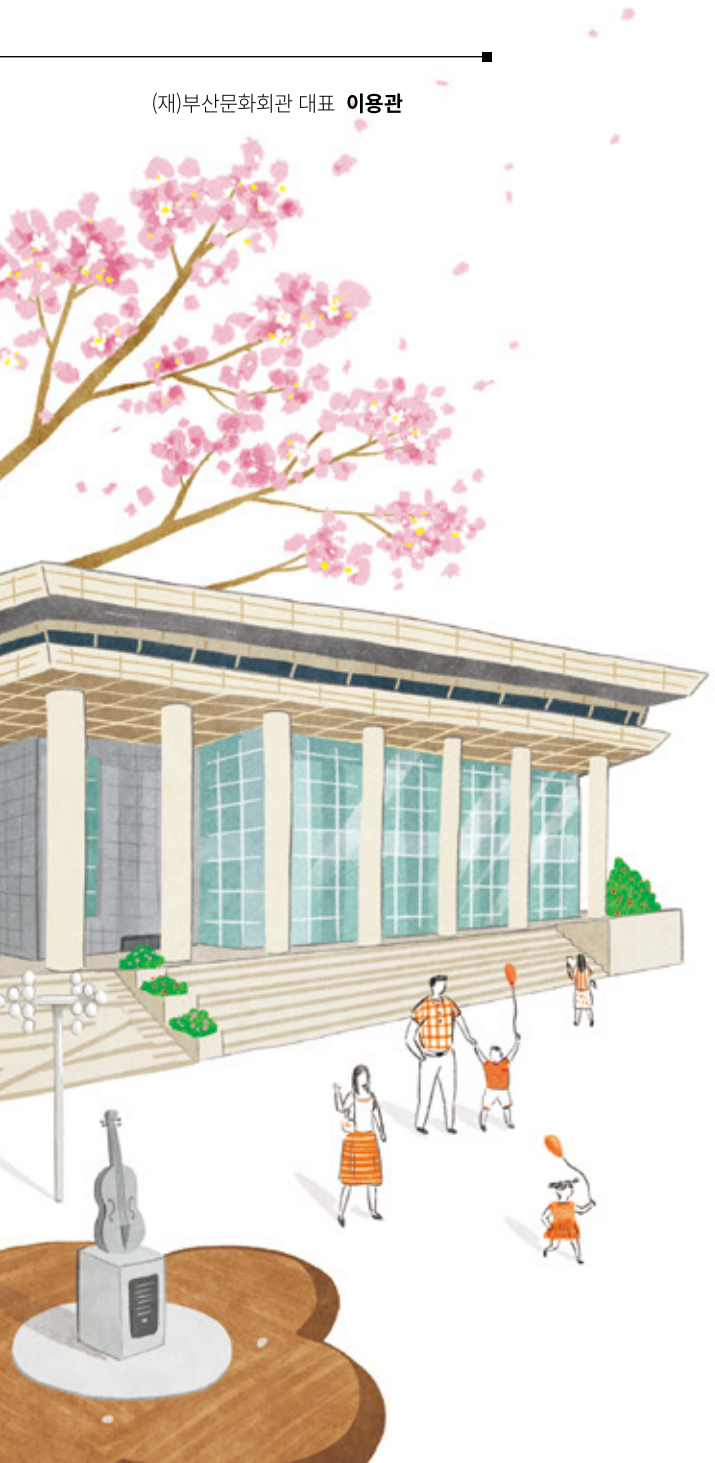
47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60 NEW BOOK
새로 나온 책

61 BSCC NEWS
(재)부산문화회관 소식

극장장의 손 편지

(재)부산문화회관 대표 **이용관**



'지역'보다 '부산'을 말할 때

이번호 '극장장의 손편지'에서도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감독 또는 예술감독 후보자 선정의 뒷이야기와 후속 대책의 이야기를 더 하고자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선정결과를 놓고 부산 예술계의 평이 엇갈렸다는 것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아셨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평은 좋은 예술감독을 모시기 위해 추천제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 불가피했고, 선정결과는 어느 때보다도 괜찮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예술가들이 배제되었다는 부정적 평가도 강했습니다. 세 사람을 놓고 돌아가면서 공연을 해보는 방식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습니다.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애초의 선의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도록 앞으로 세심한 관리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지역예술가를 배제했다'는 평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줍니다. 저희도 지역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추천위원들에게 당부를 했지만 '공연 이력에서 큰 작품의 경험이 없(적)다'든가 '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자리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곳이 아니라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자리'라는 논리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저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방식에서는 제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의 최근 경험 하나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부임하자마자 우리 문화회관과 지역예술생태계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른 초반의 문화회관 여성 기획자가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가겠다는 말을 들으면서입니다. 알고 보니 그는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여러 해 동안 수도권의 문화기관에서 공연기획을 해오다가 마침 부산문화회관의 공채로 뽑혀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온 이였습니다. 2018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예술진흥연맹(FACP) 국제회의를 도맡아 해내고, 그 수고로 한국공연예술경영대상 기획자상까지 받았지요. 영어를 구사할 줄 알아서 국제 비즈니스를 맡고 있는 드문 재원이

기도 했습니다. 같은 팀 직원에게 왜 그만 둔다고 하느냐 물어보니 “연봉이 적어서”라는 답이 돌아 왔습니다.

아까운 인재다 싶어 직접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서울로 다시 떠나야 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금방 눈물부터 쏟아냈습니다. 울면서 이어 간 그 친구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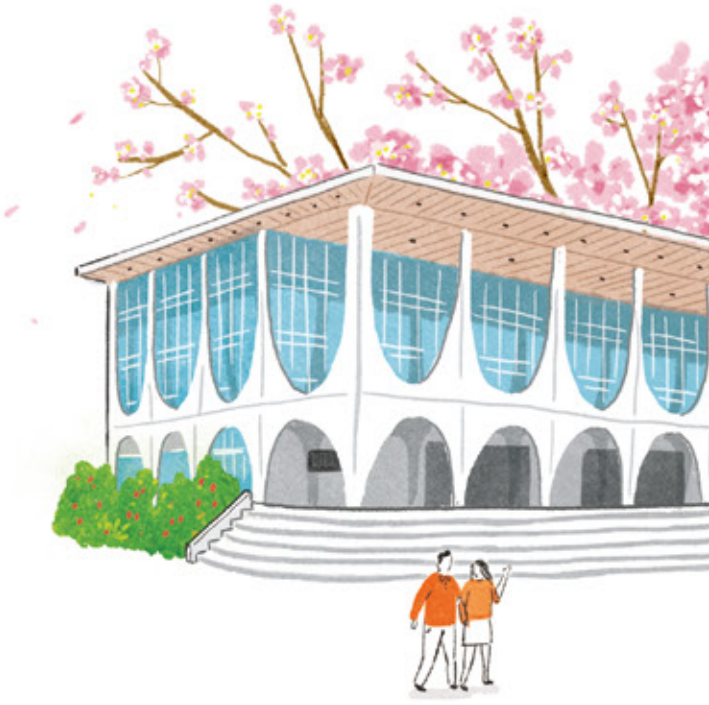
“연봉 때문만은 아니다. 나름 의욕적으로 일하면서도 지역공공기관과 문화계의 한계를 많이 느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어느 날 부터인가 ‘서울 것들’이라는 말이 들리는 것이었다. 부산이 고향인데도 서울에서 왔다는 이유로 견제하고 도와주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다.”

물론 그 또래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일 터입니다. 나는 누구나 생에서 수없이 마주칠 그런 일들을 강인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여린 눈물만을 흘리고 있는 그가 안타까웠습니다. 삼고초려를 하다시피 했지만 그는 마음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부산에도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이 곧 들어서니 더 큰 물에서 놀다가 다시 오라”했지만 미소만 지을 뿐 끝내 서울로 되돌아갔습니다. 앞으로 명절이나 부모님을 뵈러 부산을 올 때마다 그 친구가 가질 감정은 어떠할까요?

제 분야가 아니라서 말하기 조심스러우나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날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한 것은 지역에 함몰되지 않고 좋은 인재들을 포용하면서 더 탄력을 받았을 터입니다. 부산을 영화의 도시로 불리게 한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부산의 인재들도 동반 성장을 했다는 게 더욱 큰 가치일 것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것이 기득권이 된다면 외부인재가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지역인재가 밖으로 나가기도 어려울 테지요.

비판이 한창일 때 부산시 공무원 출신인 대학 선배가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지역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성공할 수 있는 모델과 (그런 일을 이어줄 수 있는) 인물을 만나야 한다. 부산을 지역잔치를 하는 곳으로 좁히거나 닫아선 안 된다. 지역 색보다 능력 있는 인재가 기꺼이 모이는 곳이어야 한다.”

며칠 전 원로예술가 한 분으로부터 “아, 우리가 사람을 못 키웠구나”하는 탄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역에서도 인재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예술인 스타 육성 프로젝트(가칭)’란 이름으로 기성예술인들에게는 큰 규모의 제작 경험을, 신진예술가들에게는 재능을 펼쳐 보일 기회를 줄 계획도 구상해 봤습니다. 말하자면 시립예술단의 예술감독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지요. 이들이 부산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로 진출하도록 돕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혼자의 능력이 없으면 어려운 길이기도 할 테지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지역예술인에 대한 배려의 방식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부산의 문화생태계도 더 풍성해 질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지역’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포용력 있는 ‘부산’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떠나간 그 친구가 기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산을 말입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토니상 수상’ 노라가 돌아왔다!

인형의 집 Part 2

‘노라’가 돌아왔다!

1879년 초연된 입센의 <인형의 집>은 사회가 요구한 역할에 갇혀 자신으로 살지 못했던 노라가 집을 떠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여성이 자아를 찾기 위해 가출한다는 설정은 당시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결말이었고 이 작품은 발표되자마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떠났던 그녀가 그 문을 다시 두드린다. 미국의 극작가 루카스 네이스가 2017년 발표한 <인형의 집 Part 2>를 통해서이다.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노라가 떠난 후 남겨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녀 자신은 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았을까? 15년 전 자신이 힘껏 닫고 나갔던 문을 다시 열고 돌아온 노라는 토르발트, 유모, 딸과 대면한다. 미처 예상치 못했던 서로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노라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인형의 집 Part 2>는 문을 나선 것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음을, 이 후에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또 다른 세상임을 통렬하게 보여준다.

베테랑 배우들의 특급 케미

다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던 ‘노라’ 역에는 서이숙, 우미화, 남겨졌던 남편 ‘토르발트’ 역에는 손종학이 캐스팅되어 각기 다른 케미를 보여준다. 또 노라가 떠난 자리에서 가정을 지킨 유모 ‘앤 마리’ 역에는 전국향, 엄마를 첫 대면하는 딸 ‘에미’ 역으로는 이경미가 출연하여 환상적인 호흡을 선사한다. 자, 이제 노크 소리가 멈추고 문이 열린다. 돌아온 그녀, 노라를 만나보자~

6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능)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노라의 이야기
<인형의 집 Part2>

LG아트센터 기획팀장 **이현정**

노르웨이의 작가 헨리크 입센이 쓴 〈인형의 집〉은 187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초연되었다. 이제까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삶이 단지 장난감 집에 놓여진 인형과 다를 바 없었다는 깨달음에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서는 마지막 장면은 당시 19세기 사회 분위기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실로 엄청난 논란과 반향을 일으켰다. 초연되자 마자 비평가들의 날 선 비난과 공연관람객들의 거센 항의와 동시에 여성 인권과 해방을 지지했던 이들에게 열렬한 찬사를 받기도 했던 이 작품은 결국 독일 공연에서는 주인공 노라를 맡은 배우가 마지막 장면의 연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엔딩을 바꿔 불이 꺼진 후 노라가 집을 떠나지 않고 남는 것으로 수정되는 해프닝을 만들기도 했다. 이후 노라는 '여성의 자유와 평등'에 있어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고, 수 많은 연출가들에게 〈인형의 집〉의 마지막 장면을 좀 더 급진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욕구를 안겨주기도 했다. 1997년 오스트리아 부르그테아터 버전에서는 남편과 함께 집 밖으로 나온 노라가 막이 내려질 때까지 끝없이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2002년 독일 탈리아 극장 버전에서는 집을 나온 노라가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 담배를 피우며 사색에 잠기기도 한다. 그 중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충격적인 결말은 국내에서도 내한공연을 한 바 있는 독일 샤우뷔네 극단의 연출가 토마스 오스터마이어의 2003년작 〈노라〉일 것이다.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당당히 주장하며 문을 박차고 떠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21세기 노라는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이며 노라가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관객들의 모든 기대를 한 순간 날려 버린다. 왜, 그리고 꼭 노라는 토르발트를 죽여야 했을까에 대한 많은 해석과 논란을 낳기는 했으나 적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당신과 내가 다시 결합할 일은 없을 거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결코 믿지 않아요"라고 말하며 떠났던 노라의 말을 의심했던 관객들에게 연출가는 '더 이상의 기적은 정말이지 없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입센의 〈인형의 집〉의 또 다른 버전이자 해석일 뿐, 다행스럽게도 이후로도 수 많은 노라와 토르발트는 살아서 헤어지고 있다. 그게 왜 다행스러운 일이었는가 하면, 만약 오스터마이어의 버전이 정석으로 받아들여졌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노라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1일 부산문화회관에서 공연할 〈인형의 집 Part 2〉에서 노라는 집을 떠난 후 15년 만에 돌아온다.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도록 큰 소리로 닫고 나간 그 문을 통해 다시 돌아온 노라는 그간 힘든 삶을 살았을 거라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성공한 작가가 되어 돌아온다. 그리고 자신이 남겨두었던 가족들과 차례로 만난다.

"앤 마리, 당신이 이 집을 떠났어야 할 이유는 나 보다 훨씬 많았어요."

노라를 처음 맞이하는 건 유모 앤 마리다. 어릴 때부터 노라를 키웠던 앤 마리는 그녀가 두고 간 세 자녀도 그녀를 대

신해 키웠고 그러느라 자신의 남편과 자녀는 막상 등한시해야만 했다. 이를 두고 노라와 앤 마리는 한 차례 설전을 벌인다. 노라가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식을 버린 건 앤 마리나 노라나 똑같고, 심지어 그건 앤 마리의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것에 앤 마리는 그저 어이가 없다.

그렇다면 노라는 왜 돌아온 걸까? 자신의 본명을 숨기고 필명으로 활동을 하면서 작가로 큰 성공을 거둔 노라는 어떤 사건에 휘말려 자신의 실명이 공개될 처지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토르발트와 이혼하지 않은 채 15년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돌아온 거다. 토르발트에게 이혼을 요구하러. 예상치 못한 스토리 전개다. 그리고 노라는 이혼을 하기 위해 15년 만에 토르발트와 그녀의 성장한 딸 에미까지 차례로 마주한다.

집을 나가서야 비로소 '제대로 삶다운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노라지만 그녀가 15년 만에 마주한 현실과 남겨진 가족들은 그녀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다. 15년 만에 돌아온 노

라는 과연 이들 모두를 설득할 수 있을까. 그녀가 나가면서 남긴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그녀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 입센의 〈인형의 집〉이 그랬듯이 이 작품은 또 한번 우리에게 숙제를 안긴다. 네 명의 캐릭터들은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들의 입장과 논리는 매우 명확하지만 그래서 더욱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어느 누구도 완전히 노라의 입장에 설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점이 이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가는 노라에 대한 완전한 이해보다는 15년 전의 노라의 가출, 아니 정확하게는 140년 전, 노라가 일으킨 파문이 과연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되돌아 보게 한다.

루카스 네이스의 〈인형의 집 Part 2〉는 지난해 말 국립극단에서 국내 초연한 〈오슬로〉와 더불어 2017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두 차례나 연장공연하며 장장 10개월간 롱런했으며 지난해 미국 내 27개 극장에서 공연하면서 한 해 가장 많이 공연된 작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브로드웨이 초연작에서는 아카데미 수상 경력의 크리스 쿠퍼(토르발트역)와 드라마 〈빅뱅이론〉의 스타 로리 멕카프(노라역)가 출연했고,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연예술상인 토니 어워드 최대 노미네이션(8개 부문)과 여우주연상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다. 작품의 인기 비결은 단연코 루카스 네이스의 참신하고 영리한 대본에 있다. 이미 전작 〈크리스천스〉로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화제를 일으키며 오비상(Obie Award)을 수상한 경력을 가진 네이스는 본 작품으로 브로드웨이 데뷔를 화려하게 치른다. 19세기 입셉의 문제작 〈인형의 집〉의 속편처럼 쓰여진 이 작품은 원작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교묘하게 오버랩 시키면서도 관객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참신한 발상과 반전에 반전을 이루는 스토리 전개, 그리고 수 많은 명대사들을 맛깔스럽게 펼쳐낸다. 노라가 집을 나간 지 15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여전히 19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히 살아있는 캐릭터들과 세련된 언어,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는 시대적 배경 따위는 잊게 만든다. 노라와 토르발트, 노라와 에미 그리고 노라와 앤 마리가 펼치는 설전을 듣고 또 보고 있으면 "영리하고 재미있고 보는 내내 몰두하게 만드는 작품"이라는 뉴욕 타임즈의 평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국내 초연은 서울의 LG아트센터에서 4월 10일 이루어져 이미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연출은 〈헤드윅〉, 〈번지점프를 하다〉, 〈스프링 어웨이크닝〉 등 다수의 뮤지컬 작품과 〈비너스 인 퍼〉, 〈하이젠버그〉 등에서 감각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은 김민정 연출이 맡았고, 노라 역에 서이숙, 우미화 배우가 더블 캐스팅되어 토르발트역을 맡은 손종학 배우와 서로 다른 케미를 선보인다. 그리고 유모 앤 마리 역에 전국향, 딸 에미 역에 이경미 등 무대 장악력과 연기력을 두루 갖춘 배우들이 함께 한다.

모든 좋은 작품들이 그러하듯 이 작품은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혹은 차마 바로 돌아서지 못해 들른 근처 맥주 집에 앉아 이 네 명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변명하고 비판하고 또 동정하며 작품을 곱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

5

2019 MAY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챔 챔버홀
야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즉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전시실 **한국추사서화예술전 전국공모전** 5월 4일(토)-5월 6일(월) 한국추사서예가협회 이춘구 010-3860-9958 **제16회 부산서예전람회** 5월 8일(수)-5월 11일(토) (사)한국서가협회 부산지회 권미송 759-8858, 010-3246-2347 **2019 부산회화제** 5월 13일(월)-5월 18일(토) (사)부산미술협회 서양화분과 김명수 010-4138-4847		
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6**	**7** 우현수 더블베이스 귀국 독주회 19:30 챔 초대/우현수(010-4096-9324)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3** 부산장로성가단 제18회 정기연주회 19:30 대 초대/ 부산장로성가단(010-4577-9884)	**14** 소프라노 박은주 독창회 19:30 대 5만원·3만원·2만원/부산문화(1600-180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9 복스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추모 연주 '모차르트 레퀴엠' 19:00 대 전석 1만원/복스앙상블(010-3576-9495) 부산예술가곡 5주년 연주회 17:00 중 전석 1만원 부산예술가곡 성악아카데미(010-3884-462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	**21** 부산예술고등학교 제23회 정기연주회 19:00 대 부산예술고등학교(010-5601-229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6 2019 부산사랑음악회 '부산 유라시아 그리고 북극항로' 19:30 대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부산MBC(760-1093) 2019 제4회 부산국악생활문화예술제 13:00, 18:00 중 부산국악생활문화연합회(010-2889-0655) 최지수 바이올린 독주회 15:00 챔 초대/최지수(010-3510-630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7**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2019 EOPO Chamber music '실내악으로의 초대' 19:30 챔 전석 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8**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19 솔로이스트들의 축제'19:30 중 전석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0) 바리톤 오세민 독창회 19:30 챔 오세민(010-2330-0994)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WED	THU	FRI	SAT
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콘서트 19:30 대 20만원·10만원·5만원·3만원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010-3074-0366) 솔오페라단 가족오페라 기획시리즈 III 모차르트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19:30 중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솔오페라단(1544-937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 솔오페라단 가족오페라 기획시리즈 III 모차르트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19:30 중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솔오페라단(1544-9373)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19:30 챔 전석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4**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조수미 콘서트 'Mother Dear' 17:00 대 14만원·12만원·9만원·7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Azamara Evening Event 18:00 중 (주)아주인센티브(010-9322-2326)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8 어버이날 효도 큰 잔치 19:30 중 락음국악단(010-6888-9110) 이은욱 바이올린 리사이틀 'Vocalise I ' 19:30 챔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9**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0** 경남여고 수정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발표회 19:30 중 초대/수정합창단(010-4872-9568)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1** 제4회 부산남구생활문화예술제 13:00 중 부산남구생활문화연합회(010-2889-0655) 김윤희 플루트 독주회 17:00 챔 전석 2만원/윤예술기획(010-6516-9838)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5 제8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대 초대(www.johnlee.or.kr 응모 후 추첨)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637-0125) 제28회 부산무용제 19:30 중 전석 5천원(3일 관람권)/부산무용협회(632-5116)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6** 2019 닥터스 심포닉 밴드 제19회 정기연주회 19:30 대 무료/닥터스심포닉밴드(010-9458-9258) 제28회 부산무용제 19:30 중 전석 5천원(3일 관람권)/부산무용협회(632-5116)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7**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1회 정기연주회 '목소리'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제28회 부산무용제 19:30 중 전석 5천원(3일 관람권)/부산무용협회(632-5116) 김유빈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챔 초대/김유빈(010-8507-651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8** 참사랑 패밀리 콘서트 19:00 중 무료/아가페문화예술원(010-3879-2487) 에릭 루 피아노 리사이틀 17:00 챔 5만원·3만원/(주)더블유씨엔코리아(747-550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2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5 '오페라 이야기 II' 11:00 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57회 정기연주회 19:30 중 전석 1만원 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5044-532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3**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57회 정기연주회 19:30 중 전석 1만원 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5044-5320) 황성훈 피아노 리사이틀 19:30 챔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4**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_가족뮤지컬 '아주 특별한 선물' 20:00 대 전석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16) 임재홍 바이올린 리사이틀 19:30 챔 전석 1만원/임재홍(010-4876-459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5**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_가족뮤지컬 '아주 특별한 선물' 17:00 대 전석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16) 부산음악사랑회 제13회 정기연주회 18:00 챔 전석 1만원 부산음악사랑회(010-9692-397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9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0** 클라라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연주 '클라라와 친구들' 19:30 챔 초대/고태욱(010-7742-0556)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1**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4회 정기연주회 김수현 지휘자 취임연주회 'NEW WAVE' 19:30 대 전석 2천원(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할인 1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7) 최희연 해금독주회 XII '해금위드' 19:30 챔 초대/최희연(010-2567-1648)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5
2019 M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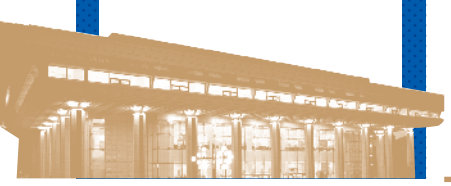
부산시민회관

BUSAN CITIZEN'S HALL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광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전시실 **석봉회 20년의 흔적** 5월 9일(목)-5월 12일(일) 1, 2층 전시실 석봉회 010-3561-1039 **창립 32주년 제19회 부산연묵서화 회원전** 5월 13일(월)-5월 18일(토) 1층 전시실 부산연묵서화 010-2551-7819 **부산디카사랑** 5월 17일(금)-5월 19일(일) 2층 전시실 부산디카사랑 010-7197-6329	**제33회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사진공모전'** 5월 21일(화)-25일(토) 1, 2층 전시실 무료/부산사진협회 631-4111 **박수진 개인전** 5월 26일(일)-5월 30일(목) 2층 전시실 박수진 010-8916-8466	**제28회 부산초대사진작가회 회원전** 5월 27일(월)-5월 30일(목) 1층 전시실 부산초대사진작가회 010-3570-6653 **제33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 꽃다발 만들기대회'** 6월 1일(토) 오후 1:00 1, 2층 전시실 부산꽃예술작가협회 612-2604
5 어린이 뮤지컬 '코코몽' 11:00, 14:00 대 전석 5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2019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11:00, 14:00 소 전석 3만5천원 (주)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6**	**7**
12	**13**	**14**
19 2019 부산국악축제 18:00 대 (사)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644-5211)	**20**	**21**
26 2019년 제52회 Mr&Ms Fitness 부산선발대회 10:00 대 전석 1만원 부산광역시보디빌딩협회(500-7966)	**27**	**28** 한국건강대학 개교 9주년 기념 공연 13:00 대 무료/한국건강대학(607-0134)

WED	THU	FRI	SAT
1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호주에서 온 세계 최고의 서커스 'BACKBONE' 14:30 대 8만원·6만원·4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2**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호주에서 온 세계 최고의 서커스 'BACKBONE' 19:30 대 8만원·6만원·4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3**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9 시민뜨락축제-부산시립무용단' 12:20 야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4** 어린이 뮤지컬 '코코몽' 11:00, 14:00, 16:00 대 전석 5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2019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11:00, 14:00, 16:00 소 전석 3만5천원 (주)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8 제47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10:00 대 부산노인종합복지관협회(466-2591)	**9**	**10** 정태춘, 박은옥 40주년 전국투어 콘서트 '날자, 오리배' 20:00 대 9만9천원·8만8천원·7만7천원 (주)인사이트엔터테이먼트(02-541-7151)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9 시민뜨락축제-전자현악팀 리즈, 코미디언인 나일준' 12:20 야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11** 정태춘, 박은옥 40주년 전국투어 콘서트 '날자, 오리배' 19:00 대 9만9천원·8만8천원·7만7천원 (주)인사이트엔터테이먼트(02-541-7151) 2019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11:00, 13:00, 15:00, 17:00 소 세계문화진흥협회(010-9171-0307)
15	**16**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부산월드뮤직페스타' 19:30 소 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17**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부산월드뮤직페스타' 19:30 소 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9 시민뜨락축제-부산직장인밴드 애플파이, 로르노아(카메룬), 칼라시마(이탈리아)' 12:20 야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18**
22 한얼노인교육축제 13:00 대 한국노인교육연구소(853-8801)	**23**	**24**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9 시민뜨락축제-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12:20 야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25** 제33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무용예술제' 17:00 대 무료/부산무용협회 (632-5116) 제3회 가요사랑 까멜리아 콘서트 14:30 소 가요사랑 까멜리아(010-3928-6633)
29 제2회 그린연예예술단 신곡발표 및 축하공연 13:00 소 그린연예예술단(010-2528-4612)	**30**	**31**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상영회 '슈퍼배드 3' 14:00 소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4)	

부산시립극단
신임 예술감독 김지용

부산시립극단 신임 예술감독으로 전 포항시립극단 예술감독 김지용 씨가 선임됐다. 공개모집으로 선임하던 기존 선출방식에서 벗어나 올해 처음 도입한 '전문가 추천위원회 선출'을 통해 김지용 연출가가 선임되면서 그 어느때보다 신임 예술감독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김지용 예술감독은 부산시립극단과 이미 수차례 작품 활동을 통해 호흡을 맞춘 바 있다. 2009년 부산시립극단이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당시, 소위 잘나가던 젊은 연출가 3명과 함께 했던 기념공연에서 김지용 예술감독은 이오네스코 '지금…여기!'라는 작품으로 부산시립극단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작품으로서 최초 상연인데다 우리의 현 시점에 맞게 작품을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2년 후 그를 연극계로 이끌었던 부산시립극단 단원 박찬영 배우의 퇴임기념공연 'noWhere'로 다시 무대에 올려져 초연무대와는 또다른 무대로 호평받은 바 있다.

김지용 예술감독은 그 이후로도 부산시립극단과 프랑스 고전극의 최고 걸작이라 일컫는 장 라신의 '페드르(2010년)', 고대 그리스의 비극작가 아이스킬로스의 3부작을 각색한 '오레스테리아(2012년)', 영국 최고의 극작가 데이빗 해어의 'The permanent way:철로(2014년)'를 연달아 무대에 올리면서 극단과 함께 성장해왔다. 특히 중극장 무대 위에 원형구조의 새로운 무대와 객석을 만들었던 '페드르', 부산시립극단 창단 최초로 매진사례를 기록했던 '오레스테이아' 등 매 공연마다 화제를 낳으며 부산시립극단史의 한 부분을 함께 쌓아왔다.

고등학교 시절 시를 썼던 김지용 예술감독이 연극에 눈을 뜬 것은 대학 시절 극예술연구회에 들어가면서부터이다. 대학시절 첫 연출한 이오네스코의 부조리극 '대머리여가수'를 코미디극으로 각색하여 호평을 받은 김지용 예술감독은 실존주의 작품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카뮈의 '페스트'로 제1회 부산대학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학 졸업 후 경제학 전공을 살려 한때 무역회사에 취직하기도 했으나 그를 눈여겨보고 있던 박찬영 배우의 추천으로 2004년,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W.C 부산진역'의 연출가로 부산연극계에 데뷔했다.

스스로 '연출하는 극작가'라 칭하는 김지용 예술감독은 극작가로서도 그 이력이 화려하다. 연극계에 발을 딛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을 졸업하기도 한 김지용 예술감독은 2005년 제23회 부산연극제에서 'PLAY'로 희곡상을 수상하고 이듬해 다시 그의 새로운 창작극 'PLAY 5_Mankind history'로 부산연극제에 출전, 희곡상과 연출상을 동시에 움켜쥐었다. 2006년에는 '가출소녀 우주여행기'로 부산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에, 2008년에는 '그 섬에서의 생존방식'으로 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에 당선됐으며, 2013년 그의 창작희곡과 공연대본집으로 구성한 첫 번째 희곡집 '그 섬에서의 생존방식'을 발간하기도 했다.

연출가로서도 쉼없는 행보를 선보이면서 2010년과 2011년 부산연극제에서 연이어 연출상을 받는가 하면 제9회 봉생청년문화상(공연부문, 2011년), 올해의 연극인상(2013)을 수상하며 평단의 호평을 넘어 관객이 신뢰하는 극작가이자 연출가로 사랑받고 있다.

"코미디 같은 대중적인 작품을 좋아하지 않지만 작품은 기본적으로 대중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김지용 예술감독. 그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고전작품을 자주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누구나 아는 내용을 자신만의 새로운 시각으로 각색을 거쳐 우리 시대 다양한 현실문제를 은유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또, 캐릭터 보다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작품을 선호하다 보니 아무래도 소극장 연극보다는 대작 위주의 무대을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

"무대와 객석이 소통하는 작품을 통해 관객이 그 작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감으로써 예술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작품을 통한 이런 경험이야말로 연극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해 줄 수 있으며, 나아가 부산문화회관 대한 호감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부산시립극단은 7월과 12월 두차례 정기공연을 남겨두고 있다. 김지용 예술감독은 준비기간이 짧은 7월 정기공연에서는 기존 작품들 중에서, 12월 정기공연에서는 새로운 창작극을 통해 그만의 색깔있는 무대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신임 수석지휘자 이명근

1994년 창단, 올해로 창단 25주년을 맞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대 수석지휘자로 새로운 음악인생을 시작하는 이명근 지휘자.
벚꽃 만발한 부산의 봄을 처음 만난 그는 부산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의 만남이 아직은 설렌다.

지휘계의 대부 Gustav Meier로 부터 '아주 재능 있는 젊은 지휘자, 그는 이미 위대한 아티스트'라는 찬사를 받은 이명근 지휘자는 번스타인의 제자이자 볼티모어 심포니 음악감독인 스승 Marin Alsop의 총애를 받으며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클래식의 흐름까지 섭렵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지휘과를 졸업하고 20대 후반에 독일 유학길에 오른 그는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에서 지휘과 디플롬 석사를 마쳤다. 미국에 계신 부모님과 살 요량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활동을 이어가며 피바디 음대에서 지휘과 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5년간의 미국 활동을 정리하고 귀국한지 2년 남짓, 이제 본격적인 국내 활동을 시작한 그에게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분명 새로운 도전이다.

"지휘자로서 살아왔지만 사실 오랜 기간 공부를 해왔고, 지휘자가 되기 위한 경험을 쌓아왔다면 이제 비로소 진정한 지휘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출발은 항상 설레고 기분 좋게 합니다."

이명근 지휘자는 어린 시절 성악을 전공한 아버지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했다. 6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고, 고등학생이 되어 음악을 전공할 결심을 하게 되면서 작곡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정치용 교수를 사사한 이명근 지휘자는 대학 재학 중 한국지휘자협회가 주최한 지휘자 캠프에서 최우수 지휘자로 선정되어 제주시립교향악단과 수원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하였고, 졸업 후에는 부천시립교향악단에서 주최한 젊은 지휘자를 위한 오디션에서 1등하여 부천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하며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지휘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지휘자가 되기 위해 20여년간 공부해온 만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하고 싶은 음악이 많다. 최근 드보르작에 심취해 있다는 그는 앞으로 실험적인 음악보다는 단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들을 엄선해서 연주할 계획이다.

"단원들과 따뜻한 음악, 위로를 주는 음악, 열정 가득한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매 연주회를 준비하며 그 프로그램 자체만으로도 성취감이 있는 연주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연습하고 연주회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인만큼 이명근 지휘자는 단원들을 미래의 좋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고민이 많다. 고전 곡들을 통해 아티큘레이션과 음악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낭만, 현대 곡들을 통해 어려운 주법들과 곡을 길게 끌고 나아가는 호흡들을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 고전 곡들과 낭만 곡들을 균형 있게 잘 배치할 계획이다. 그래서 앞으로 단원들과 함께 하는 2년 동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출신 단원들이 어디에서든 인정을 수 있도록 단원들의 역량을 이끌어내고 싶다.

현재 지휘자로서의 길 외에 대학에서 후진 양성에도 열심인 이명근 지휘자는 지휘자로, 교육자로서의 삶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다는 당찬 포부만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각오가 대단하다.

"제가 어디에서 활동하든지 먼저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휘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계속 배워갈 예정입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제 삶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좋은 연주를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하는 그는 청년들의 열정이 부산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단원들의 꿈과 열정을 보러오는 청중들이 늘어나고, 같이 추억하고, 음악으로 꿈꾸는 부산의 또 다른 일상이 더없이 행복하다.

글 백경옥_ 부산시립예술단 서양음악팀장

Caro nome
사랑하는 그 이름…
리골레토 이야기

이의주의 100자 스토리 '리골레토'

질다라는 아름다운 딸을 가진 광대 꼽추 리골레토는 만토바의 영주이자 호색한인 듀카에게 여성을 공급해주는 포주이다. 꼭꼭 숨겨왔던 자신의 딸이 듀카에게 정복당하고 버림을 받자 분노에 차 능욕당한 딸의 복수로 암살하려던 리골레토는 질다의 희생으로 딸을 잃고 민쵸 강변에서 '저주받았네'라며 막이 내린다.

'Mother Dear'라는 콘서트의 전국 순회를 알리는 첫 시작 리허설부터 연주까지 나는 볼 수 있었고, 이제 막 그 연주가 끝났다. 이 콘서트의 주인공인 소프라노의 분장실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관계자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그녀와 인연을 맺은 지 벌써 13년 차가 되었다고 알려준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보다 더 오래전 이미 나 혼자 그녀를 먼저 알고 있었다고…….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필자가 중학교 1학년 시절이었던 어느 날 이른 아침, 학교에 등교하기 전 잠깐 시간이 남아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젊은 소프라노가 이탈리아 트리에스테(Trieste)라는 도시에서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Rigoletto)'의 여주인공 '질다(Gilda) 역으로 데뷔를 한다는 기사가 났었다. 그녀는 이전 해인 1985년에 이탈리아 최고 권위인 비오티(Viotti) 국제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해 이미 한국과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소프라노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인재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어머니가 성음사에서 수입한 그라모폰(Grammophon)과 데카(Decca) 레이블 등의 클래식 LP 음반을 내게 사주시며 언젠가는 우리나라 음악가들의 음반도 이렇게 좋은 레이블에서 나오는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선진국으로의 발판을 삼아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온 나라의 캐치 프레이즈였으며, 나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리골레토'라는 이 생소한 단어가 내 기억에 남았다. '무슨 말이지?' 영어 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이 단어는 그저 그렇게 궁금한 단어로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게 되었다. 그러다 고교 시절 루치아노 파바로티(Luciano Pavarotti, 1935–2008)의 오페라 하이라이트 카세트테이프에서 '여자의 마음'이라는 노래 제목에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발췌된 아리아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다시금 그 이름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듯 오페라에 관한 관심은 국립오페라단의 공연장으로 향하게 하고, 그렇게 오페라를 전공하게 되었고, 나는 오페라의 본 고장 이탈리아로 달려가게 된다.

내 인생에서 참으로 많은 행운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행운은 당연히 이탈리아에서 스승을 만난 것이다. 이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분의 존함은 'Franco Vacchi(1927–2008)' 이다. 그분 덕분으로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알레산드리아 시립가극장에서 바로 이 작품인 '리골레토'의 협력연출로 데뷔할 수 있었다. 스승은 내게 연출가가 되기 위한 과정들을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었

고, 나를 본 고장인 이탈리아에서 연출가로 데뷔시키고 싶어 했었다. 그래서 문제가 터졌다. 바로 '리골레토'에서 말이다. 당시 이탈리아에 유학한지 갓 2~3년 밖에 안 되는 내게 협력 연출을 맡기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극장 측의 입장과 기회를 주면서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는 연출가-나의 스승-가 나로 인해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다. 특히 '동양인이 어떻게 리골레토라는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지'라며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말투는 물론 그것도 바로 내 눈 앞에서 말하는데 나는 분개했다. 지금이나 그때나 한 성질 하는 나로서는 참을 수 없었다. 나보다 더 화난 상태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스승께서는 자신보다 나를 진정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하고 극장 측과 잠시 휴전을 선포한 후 나를 극장 앞 카페에 데리고 나갔다. 쿠바산 시가를 피우며 나의 흥분에 대해 훈계하려는 찰나 나는 그때 십 수 년 전 트리에스테에서 '리골레토'로 데뷔한 그 소프라노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미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프리마 돈나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극장 측에서 말하는 동양인이 작품을 이해할 수 없다는 논리대로면 그때의 그 질다는 이 작품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한 작품 하고 사라져 버렸을 텐데 이탈리안 당신들은 이 사람에게 당신네들의 문화 업적을 기리며 상도 주지 않았냐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 전해주세요' 라고 말한 후 나는 혼자서 기차를 타고 밀라노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다음날 아침 극장에서 전화가 왔다. 계약서 작성하러 극장으로 오라고……. 사실 나는 기분이 좋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약했으면 이런 대접을 받는건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많이 생각했다.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문화예술 분야의 탁월한 활약으로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그때와는 다른 양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그 나라에서 열리는 국제콩쿠르에 심사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반증이다. 아무튼 나는 그 '리골레토' 공연에서 나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를 발판으로 많은 경험을 했을 뿐 아니라 그 경력은 내게 큰 힘을 주었다. 이후 한국에 국립오페라단 상근 연출직을 받을 때도 그때의 경력들이 도움이 되었으니까. '리골레토'가 내게는 효자 작품인 셈이다.

글로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3년 전 나의 어머니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당시 내게 위로의 인사를 보내주셨던 분이, 바로 그때 '리골레토'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줬던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없는 프리마 돈나 조수미 선생님이셨다. 금년에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로 전국 순회공연을 하고있다. 나는 몇 달 전부터, 음반을 녹음하는 장면부터 글을 쓰고 있는 어제의 첫 공연까지 내 맘속에 있는 추억의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바람이 머무는 날'이라는 곡에서 '~선물 같은 추억되었네'라는 가사가 선생님의 입술을 타고 나오는 그 순간 내 눈에서는 눈물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사무치는 그리움의 눈물이 내 뺨에 끝없이 흘러내린다. 이 글을 쓰기 전날인 바로 어제, 그 공연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나와 인사하며 안아주시는 조수미 선생님의 모습에서 이 공연을 통해 위대한 거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이 내린 그 음성으로 추억을 만들어 주며 어머니의 감동을 전해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바람이 머무는 날엔 / 엄마 목소리 귀에 울려
헤어져 있어도, 시간이 흘러도 / 어제처럼 한결같이
어둠이 깊어질 때면 / 엄마 얼굴을 그려보네
거울 앞에 서서 미소지으면, / 바라보는 모습
어쩜 이리 닮았는지 / 함께 부르던 노래 축복되고
같이 걸었던 그 길 / 선물 같은 추억되었네
바람 속에 들리는 / 그대 웃음소리 그리워

소프라노 조수미 노래 **'바람이 머무는 날'**

오르세 미술관(Musée d'Orsay) 두 번째 이야기
인상주의 그룹의 리더, 마네(ÉDOUARD MANET)

글 김성민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유로자전거나라 교육팀장
사진 이상호 유로자전거나라 가이드

하고 싶은 것과 하지 못하는 일

오랜만에 중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다. 내 기억 속 친구들은 다 똑같은 까까머리 학생들이었는데 달라진 모습들을 보면서 그 동안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사는 환경과 하는 일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변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나는 주로 앉아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직업상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니 점점 "하고 싶은 일보다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오르세 미술관의 대표적인 화가 에두아르 마네에 대해 적어보려고 한다. 인상주의 그룹의 리더 역할을 했던 마네는 누구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1 센 강변에 위치한 오르세 미술관
2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된 르누아르 작품을 감상하는 학생들
3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2

3

어린 시절 마네

마네 가문은 전통적으로 아버지 오귀스트를 비롯하여 판사 및 법조인이 많은 가문이었다. 마네의 어머니는 외교관의 딸이었으니 마네는 그 당시 매우 부유한 부르주아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마네의 아버지는 자신과 같이 아들이 법조인이 되기를 원했으나, 마네는 공부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마네의 중학교 성적표에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적혀 있다. 한편 마네의 외삼촌 에드몽은 종종 어린 조카들과 함께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그린 그림들을 조카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공부를 못했던 마네는 차선책으로 국립해군학교에 도전했으나, 두 번이나 낙방했고 이후 외삼촌의 영향으로 그림에 흥미를 느끼고 정식으로 공부하기 시작한다.

1850년 18세의 마네는 토마스 쿠튀르(Thomas Couture, 1815~1879)의 정식 제자가 되었는데, 쿠튀르는 22세 때 로마대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당시 유명한 화가였다.(그림을 전혀 몰랐던 마네의 아버지는 쿠튀르의 그림이 비싸게 팔리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고 한다.) 쿠튀르는 암갈색과 푸른색을 혼합한 어두운 바탕 위에 당시 인기 있었던 역사화나 초상화를 그렸는데, 마네는 그의 진부한 주제와 화풍 모두를 싫어했다고 한다. 오히려 마네에게 큰 영감을 준 것은 여행을 통해 과거의 명작들을 만나는 일이었다. 특히 빈에서 만

4·6 마네의 대표작 '풀밭 위의 점심식사' 5 감상자를 쳐다보는 작품 속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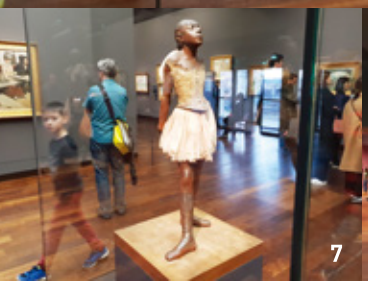
난 스페인의 화가 벨라스케스의 그림에 큰 감명을 받았고, 1853년 동생 외젠과 함께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서 본 라파엘로와 티치아노의 작품들은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후 1861년 〈스페인 기타 연주자〉라는 마네의 작품이 살롱전에 당선되었고 선배 화가였던 들라크루아, 앵그르를 비롯하여 대중과 비평가들 모두에게 극찬을 받게 된다.(흥분한 마네는 이후 2년간 스페인풍의 작품을 무려 15점이나 더 그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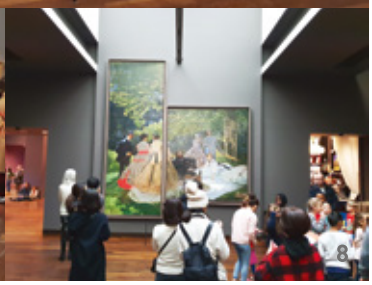
낙선전 그리고 풀밭위의 점심 식사

30대가 된 마네에게 1863년은 매우 중요한 해였다. 우선 십대 후반에 피아노 선생님으로 만났던 3살 연상의 쉬잔 렌호프와 결혼을 한다. 그리고 〈풀밭위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을 살롱전에 출품하게 된다. 1863년 살롱전은 이전에 비해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낙선하게 된다.(5천여 점의 작품 가운데 3/5 가량을 탈락시켰다.) 살롱전이 당시 신인 화가들의 유일한 등용문이다 보니 낙선된 사람들 중심으로 민심이 상당히 나빠진다. 당시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는 민심을 고려해 살롱전에 입상하지 못한 작품들을 모아 낙선전이라는 것을 개최하게 된다.(1863년은 선거가 있는 해였다.) 마네의 〈풀밭위의 점심 식사〉도 낙선되어 일반인들이 볼 수 없었던 작품이었지만 낙선적으로 인해 대중에게 공개된다.

사실 낙선전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는 것은 화가들이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아 아예 출품하지 않은 화가들도 있었지만, 마네는 자신의 작품이 그렇게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마네라는 이름을 파리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일단 기법적으로 원근법을 파괴시켰다. 그림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 가운데 그림 앞쪽에 위치한 3명의 인물들에 비해 그림 뒤쪽에 위치한 몸을 씻는 여인이 너무 크게 그려졌다.(그 오른편에 위치한 배의 크기를 보면 더 이해가 된다.) 또한 마네는 의도적으로 중간 톤의 색채를 사용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밝은 색채와 어두운 색채만을 사용해 그림을 평면처럼 만들어버렸다.

무엇보다 당시 누드화 법칙에 상당히 어긋나 있었다. 19세기 파리는 상당히 문란한 사회였다. 여름방학 시즌에는 지방에서 몰려든 학생들로 인해 매춘부들은 예약제를 실시할 정도





였고, 가정이 있는 남성들도 공공연하게 젊은 여인을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누드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현실 속 일반 여성 누드화는 용인되지 않았고 반대로 역사적 사건이나 신화 속 누드화는 용인되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완벽한 비율의(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비너스의 누드화는 항상 차고 넘치는 현상이 펼쳐진다. 심지어 같은 해에 출품된 알렉산드르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은 상당히 노골적인 성적 묘사에도 불구하고 신화라는 이유로 용인되었고 나폴레옹 3세가 그 작품을 구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네의 작품 속 여인은 매우 현실적인 모습으로 관람자를 쳐다보고 있다. 당시 관람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겉으로는 도덕적인 사람인양 행동하며 몰래 젊은 여인을 만나는 사람들이었고,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포르노에 가까운 그림을 교양있게 감상하는 척하는 매우 가식적인 사람들이었다. 아마 그림의 기법을 문제 삼았던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는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비웃는 그림 속 여인이 더 불편했으리라 생각한다.

당신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나요?

2년 후 마네는 〈올랭피아〉라는 작품으로 자신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고 그런 방식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은 살롱전을 포기하기도 했지만, 마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롱전에 도전한다. 시간이 흘러 마네는 점점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은 후배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얼마 전 책을 읽다가 보았던 자유에 대한 구절이 기억에 남는다.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신념을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던 마네는 분명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사람들은 자유가 쉽게 얻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마네를 보면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이 선택한 삶을 통한 적극적인 자유, 시간이 흘러갈수록 간절해진다.

7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된 드가의작품
8·9 오르세 미술관 내부 모습

1

근대 100년 역사의 보고
진해 근대문화투어

여느 해보다 포근한 기온으로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어느새 주변은 만개한 봄꽃으로 꽃향기가 가득하다.
4월 들어 성큼 다가온 봄 기운을 한껏 느끼며
'벚꽃의 고장' 진해로 테마여행을 떠났다.

테마여행을 떠나는 4월 12일 이른 아침,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신청자들 중 추첨의 행운을 잡은 정기회원 가족들이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모처럼 일상에 벗어나 떠나는 봄 여행에 회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난다.
벚꽃나무만 36만 그루, 대한민국 최대의 벚꽃 축제라 할 수 있는 군항제가 열리는 창원시 진해구는 지난 1910년대 일본이 군사전진기지 목적으로 만든 한국 최초의 계획도시이기도 하다. 올해는 군항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벚꽃이 피고 지면서 막상 테마여행이 진행됐던 4월 12일 진해는 푸르른 녹음으로 가득했다. 최근 들어 진해는 근대 100년 역사의 흔적을 둘러볼 수 있는 근대문화투어와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인 해군부대 내를 탐방하는 국내 유일의 군항문화탐방을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안중근 의사 탄생 100주기를 맞아 세워졌다. 이어서 진해선의 마지막 종착역인 통해역이 차창 밖으로 바라보인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군수물자들을 싣고 나르던 철길의 마지막 역으로, 지난 1961년부터 2006년까지는 해군 장병들이 출·퇴근 시 이용했던 간이역으로 사용됐다. '해군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손원일 제독의 동상을 지나자 러시아풍의 옛 일본 해군 진해요항부 청사와 병원 청사가 보인다. 월남전에 참전해 적에게 포위된 소대원을 탈출시킨 후 자신은 산화한 지덕칠 중사의 동상을 지나 해안가를 따라 올라가면 故 이승만 대통령 별장과 육각정(경남도 유형문화재 제265호)이 자리하고 있다. 故 이승만 대통령 별장은 1905년쯤 지어져 일본군 통신대가 사용했던 건물을 해방 후 해군이 개조해 1949년부터 10년간 별장으로 이용했다. 한옥과 양옥을 절충한 ㄱ자형 건물로 집무실 겸 응접실, 침실, 경호실, 식당 겸 회의실, 주방 등이 있으며, 건물 내에는 만일에 대비해 대통령

1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전시된 태극기로 지금의 태극기와 4괘의 모양이 다르다.
2·3 해군기지사령부 인근의 폐철로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감성철길
4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전시된, 안중근 의사가 서거 이틀 전 여순 감옥에서 쓴 마지막 작품 '청초당'

진해 근대문화투어가 시작되는 해군의 집에 도착하자 문화유산해설사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오전 일정은 군항도시 진해를 체험할 수 있는 군항문화탐방으로, 차량에 탑승하여 해군기지사령부와 해군사관학교를 돌아볼 수 있다. 부대 내에는 당시 일본군이 지은 건물 등 11곳의 근대문화유산과 수령 100년이 넘은 왕벚꽃, 편백, 소나무 등 고목 4,800여 그루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해군부대 1정문 앞에 도착하자 영화 '연평해전' 촬영지라는 표지판이 보인다.

정문을 지나자 왼쪽에는 '나라를 위해 몸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뜻의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글귀가 적힌 안중근 의사의 유묵비가 자리하고 있다. 이 비석의 휘호는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만주 뤼순감옥에서 순국 직전 남긴 것으로, 지난 1979년 9월 2일

5 학계의 고증을 받아 복원된 거북선으로 해군사관학교 내에 전시되어 있다. **6·7·8** 진해 근대문화역사길 투어에 나선 정기회원들 **9**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체국인 진해우체국

이 해안가로 피신할 수 있는 최장 300m의 비상지하탈출로 3개가 있다고 한다. 별장과 50m 떨어진 해안가 절벽에 있는 육각정은 1949년 8월 8일 이승만 대통령과 중화민국 장제스(蔣介石) 총통이 만나 아시아·태평양국 동맹 결성을 위한 예비회담을 개최하고 1954년 6월 15일 아시아민족 반공연맹(APACL)을 탄생시킨 유서깊은 곳이다.

군부대 탐방을 모두 마친 후 인근에 자리한 해군사관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사관학교 정문을 지나자 월남전 참전 당시 베트콩의 수류탄 공격을 몸으로 막아 부하를 구하고 산화한 이인호 소령의 동상이 회원들을 맞는다. 해군사관학교와 연병장 맞은편에는 해군사와 해양사에 관계되는 유물과 유품 870여점이 전시된 해군사관학교 박물관과 함께 임진왜란 때 사용된 거북선이 복원되어 있어 직접 둘러볼 수 있다.

해군사관학교를 마지막으로 군항문화탐방을 마친 정기회원들은 오후 근대문화역사길 투어에 앞서 육각 모양의 지붕이 인상적인 육각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쳤다. '뾰족집'이라고 알려진 육각집은 지난 1912년 세워진 건물로 당시에는 고급 술집이었으나 지금은 식당으로 운영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인근에는 영화 '장군의 아들' 촬영지로 유명한, 1911년 건립된 중국집 원해루도 자리하고 있다.

점식식사를 마친 후 다시 해군의 집 앞에 모인 회원들은 두 명의 해설사를 따라 근대문화역사길 투어에 나섰다. 진해 도심을 둘러보는 근대문화역사길은 충무공 이순신 동상이 자리하고 있는 중원로터리를 중심으로 백범 김구 선생(1876~1949)의 친필시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체국인 진해우체국(사적 제291호) 등 15곳을 스토리텔링한 코스이다. 김구 선생의 친필 시비는 지난 1946년 선생이 진해를 방문했을 때 주민들에게 선물했던 시비로,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라는 이순신 장군의 한시를 선생이 직접 친필로 쓴 것이다. 이밖에 근대문화역사길에는 옛 일본해군 진해용항부 병원장 관사, 군항마을 역사관, 1910년대 조성된 일본식 장옥거리 등이 자리하고 있어 탐방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진해여행 마지막 일정으로 제황산공원으로 향한 회원가족들은 공원까지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갔다. 제황산공원은 중원로터리 인근 도심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공원 내 높이 28m의 9층 진해탑에 오르면 탁 트인 진해 시가지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근대 100년 역사의 보고로 남아있는 진해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4월 테마여행. 봄의 절정을 알리는 벚꽃의 아름다움만큼이나 오랫동안 정기회원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6.14 (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충절의 고장 진주여행

진주성대첩의 영웅 김시민과 애장을 안고 남강에 몸을 던진 의기 논개의 구국혼이 서려있는 충절의 고향 진주로 떠나는 늦봄 여행

일정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10:00 진주성 도착, 탐방
12:00 점심식사
13:00 진양호 탐방
14:30 진주목공예전수관 목공예체험
15:30 부산으로 출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05 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김영미(남구 유엔로)
김영희(남구 분포로)
남영숙(금정구 벅구산로)
박정주(금정구 중앙대로)
박희선(수영구 남천동로)
송만오(남구 석포로)
이수영(남구 유엔평화로)
정필문(해운대구 양운로)
최경자(남구 유엔로)
하필성(남구 황령대로)

기존 회원

김재화(서구 감천로)
박노진(부산진구 가야대로)
박도연(동래구 시실로)
오현주(수영구 광안해변로)
윤해주(김해시 인제로)
이두희(해운대구 재반로)
정소진(남구 유엔평화로)
정혜선(남구 분포로)
주유미(기장군 기장읍)
최정숙(서구 임시수도기념로)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3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글로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더 무지카 아트홀	010-7191-2878
동래문화회관	550-6611
디코소극장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087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1899-3253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1100
솜사탕아트홀	922-4545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아트카페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3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12-4312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3
일터소극장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441-2733
차성아트홀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 소극장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1600-0316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1688-8998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부산월드뮤직페스타

세계 각국의 음악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부산월드뮤직페스타'가 5월 16일과 17일 이틀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세종문화회관이 공동주최하는 서울뮤직위크(SWM)와 함께 진행하는 무대로, 월드뮤직과 일렉트로팝 등 그동안 부산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장르의 연주자들을 만날 수 있다. 이번에 부산관객과 만나는 아티스트로는 체코 밴드인 '미디 라비캐드(Mydy Rabycad)'와 아르헨티나·프랑스 합작그룹 '라 예그로스(La Yegros)', 이탈리아의 인기밴드 '칼라시마(Kalascima)', 그리고 카메룬 출신의 다재다능한 가수 '로르노아(Lornoar)' 등 총 4개팀이다.

부산월드뮤직페스타의 시작을 알리는 16일에는 '일렉트릭 꿈비아의 1인자'로 꼽히는 아르헨티나의 뮤지션 라 예그로스를 중심으로 결성된 밴드 '라 예그로스'와 신시사이저의 화려한 음색 위에 펑키한 스윙 연주를 들려주는 '미디 라비캐드'가 무대에 선다. 싱어송라이터이자 랩퍼, 레코딩 아티스트인 라 예그로스는 콜롬비아의 카리브 연안 일대에서 유행하는 꿈비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칸 포크, 일렉트릭-팝, 트로피컬 팝, 레게, 힙합 등 다양한 장르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다. 밴드 '라 예그로스'는 유네스코가 '꼭 한 번 방문해야하는 세계적인 음악마켓'이라고 평가한 워멕스에 초청받아 전 세계 전문가들로부터 실력과 명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지난 2012년 결성된 밴드 '미디 라비캐드'는 일렉트로 스윙과 다양한 일렉트로를 혼합한 '글렘트로닉(glamtronic)'을 통해 재미있고 세련된 복고풍 일렉트로팝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날인 17일에는 이태리 음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밴드로 평가받는 '칼라시마'와 작가이자 작곡가이면서 가수, 그리고 댄서로 활동하는 '로르노아'가 무대에 선다. '칼라시마'는 이태리 전통 포크음악의 분위기와 일렉트로닉, 테크노 스타일의 비트의 혼합을 통해 최고의 라이브 공연을 보여준다. 서아프리카의 구전을 전수받은 '로르노아'는 모국어와 프랑스어, 영어로 모국 문화의 힘과 위대함을 강조하는 파워풀한 가사에 맞춰 노래하고 춤춘다.

한편, '칼라시마'와 '로르노아'는 이날 본 공연에 앞서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2019 시민뜨락축제'에 출연, 평소 쉽게 만날 수 없는 월드뮤직의 매력을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일시 5월 16일-17일 목-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Preview 1

Preview

2

일시 5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1회 정기연주회
목소리 Human Voice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유작 '화염 속의 천사와 에필로그'를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1회 정기연주회 '목소리'가 5월 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고 비올리스트 김상진,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임홍균,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 박민희,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윤이상의 '화염 속의 천사와 에필로그'를 비롯해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차이콥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들려준다.

1부에서는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톤을 가졌다는 중저음의 현악기 비올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로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를 바이올리니스트 임흥균과 비올리스트 김상진의 연주로, 이어지는 차이콥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협연자 김상진의 비올라 연주로 들려준다.

한국의 젊은 악장 중 경험과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악장 임홍균은 독주자로, 실내악을 사랑하는 챔버 뮤지션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클래시칸 앙상블, 한국 페스티발 앙상블의 멤버이자 지휘자 정명훈이 이끄는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멤버로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다.

동아콩쿠르 역사상 최초의 비올라 우승자로 일찍이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김상진은 '완벽한 테크닉과 파워풀하면서도 따뜻한 소리를 바탕으로 한 인상적이며 호소력 있는 연주'로 전 세계 50여 개국 100여개의 주요 도시와 페스티벌에 서왔다. 김상진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2부에서는 이번 연주회의 메인곡인 윤이상의 '화염 속의 천사와 에필로그'를 들려준다. '화염 속의 천사'는 민주화를 외치다 스러져간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넋을 위로하기 위해 작곡된 곡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지난 2001년 국내 초연한 바 있다. '에필로그'는 윤이상이 '화염 속의 천사'에서 어떤 불완전함을 느껴 이후에 작곡해 붙인 것으로, 천사들이 사후에 우주에서 들을 수 있는 우주의 음향으로 여성합창과 소프라노 독창이 함께 한다.

2012년 KBS 국악대상 가악상을 수상한 여창가객 박민희가 세상을 떠난 청년들의 모친의 마음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합창으로 청년들의 영혼이 만드는 자유로운 소리를 표현한다.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5

오페라 이야기 II

(재)부산문화회관의 특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인
마티네콘서트가 5월 22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와 TBN 아나운서 손지현의 해설, 소프라노 왕기헌, 테너 전병호, 바리톤 김종표, 베이스 박상진의 협연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19세기 벨칸토 오페라의 대명사 도니제티의 대표작 '사랑의 묘약',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돈 파스콸레'의 유명 아리아를 들려준다. 도니제티가 1832년에 작곡한 '사랑의 묘약'은 오페라 부파의 대표작으로, 그의 마지막 오페라 '돈 파스콸레',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와 더불어 이탈리아 3대 코믹 오페라로 꼽히며, 1835년에 작곡한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는 대표적인 비극 오페라로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휘자 이동신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및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마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경상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제1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오페라대상에서 특별상을, (사)한국음악협회에서 2015 한국음악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소프라노 왕기헌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로 유럽 극장에서 데뷔한 후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현재는 오페라 주역 및 오라토리오 솔리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드러운 감성과 세련된 음악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소리의 테너 전병호는 독일 하겐시립오페라극장의 전속 주역가수로 독일 오페라 무대에 서왔으며, 지난 2005년 귀국 후에는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대구 오페라하우스 등 전국의 주요 오페라단 무대에 주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바리톤 김종표는 그동안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차세대 성악가로 주목받았으며,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에서 피가로역으로 국내 데뷔한 후 다양한 오페라 무대를 통해 '울림통이 깨끗한 바리톤, 생생하게 살아있는 목소리'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베이스 박상진은 동양인 최초로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오페라극장 상임 솔로이스트를 역임하면서 그동안 오페라 주역 및 콘서트, 방송 출연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Preview 3

일시 5월 22일 수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Preview

4

일시 5월 24일 금요일 오후 8:00, 25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만 5세 이상 입장가능)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가족뮤지컬 '아주 특별한 선물'

정통 합창음악에서부터 창작합창, 가요합창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합창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부산시립합창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뮤지컬 '아주 특별한 선물'로 관객들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전 좌석이 매진되는 등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뮤지컬 '레미제라블' 갈라콘서트에 이어 부산시립합창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세미 뮤지컬 무대로, 정통 합창무대와는 다른 색다른 합창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뮤지컬 '아주 특별한 선물'은 자가 면역질환인 1형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한 어린이가 가족과 친구, 이웃들의 배려 속에서 다시 희망을 품게 된다는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만만치 않은 현실을 이겨내며 악착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 부모들과 존재만으로도 그들의 힘이 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1형 당뇨는 주로 30대 이전의 성인이나 소아에게 주로 발병한다고 해서 '소아 당뇨'라고도 불린다. 1형 당뇨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 발병하는 데 주로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에서 생기는 2형 당뇨와는 다른 질환이며, 인슐린 생성능력이 낮아 매일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직접 주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작품은 실제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작곡가 김미선과 작가 이수가 극의 작곡과 대본을 맡아 가족간의 아픔과 갈등, 사랑을 더욱 생생하게 그려낸다.

주위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결혼을 하고, 보배라는 예쁜 딸을 낳게 된 강인해, 나평범 부부. 딸인 나보배는 그야말로 모든 것에 모범인 중학교 학생이다. 너무나도 평범하면서도 그 속에서 행복을 가꾸고 사는 이들에게 어느 날 상상하지도 못한 시련이 닥쳐온다. 보배에게 찾아온 치유가 어려운 병, 1형 당뇨라는 난치병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형벌과도 같다. 가족들에게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는 질병이다. 그렇지만 보배는 또 한 번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 가장 든든한 울타리인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특별한 사람이고, 가장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번 무대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되뇌고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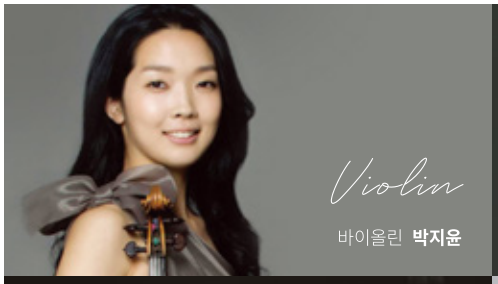
2019 EOPO Chamber Music
실내악으로의 초대

클래식 월드스타들이 펼치는 감동의 음악 항해, 2019 유라시아 오션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EOPO) Chamber Music '실내악으로의 초대'가 5월 27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인 오충근 지휘자를 예술감독으로 인류의 우정과 협력을 기치로 창단된 EOPO는 세계무대에 진출한 부산 출신의 연주자들과 유럽, 아시아, 러시아, 아메리카 등 세계 각국의 우수한 아티스트 100여명으로 구성된 연주단체로, 부산을 세계음악의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한 글로벌 축제 한마당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EOPO 단원들 중에서도 전 세계 탑 클래스 오케스트라의 악장과 수석연주자들이 대거 출연, 탄탄한 앙상블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동양인 최초 종신악장 박지윤을 비롯해 스위스 톤할레 오케스트라 제2악장 김재원, 일본 NHK 심포니 수석 오보이스트 아오야마 사토키,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순 수석 최영진, 노르웨이 오슬로 필하모닉 호른 수석 김홍박과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악대학교 겸임교수인 비올리스트 이승원, 첼리스트 김민지 서울대학교 교수, 플루티스트 오신정 인제대학교 교수, 그리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쿠세비츠키 국제콩쿠르 우승 등 수많은 콩쿨을 석권한 더블베이시스트 성민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 등 최고 기량을 갖춘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과 화합의 무대를 선보인다. 첫 곡인 헨델-할보르센 '파사칼리아'를 시작으로 모차르트 '클라리넷 5중주 작품 581', 단치 '목관5중주 작품 56 제2번', 드보르작 '현악5중주 제2번 작품 77' 등 시대를 관통하며 거대한 기둥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편, EOPO는 이번 실내악 무대에 앞서 5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19 부산사랑 음악회'를 갖는다. '부산 유라시아 그리고 북극항로'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감독 오충근이 지휘하고 2019 EOPO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 '슬라브 행진곡 작품 31'을 시작으로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교향곡 제5번 마단조 작품 64 등 차이콥스키의 작품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일시 5월 27일 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Preview 5

Preview

6

일시 5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19 솔로이스트들의 축제

부산지역 유망 연주자들의 등용문인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9 솔로이스트들의 축제'가 5월 2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미래의 음악계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음악인을 발굴, 육성하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매년 차세대 연주자들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로, 협연자 선정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젊은 솔리스트들에게 협연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김경희(플루트), 천재현(비올라), 김가원(호른), 이하원(바이올린), 정은희(오보에), 염다은(트롬본), 심은아(플루트) 등 7명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외에도 박제인(바이올린), 김하나(첼로)가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4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대 수석지휘자로 새롭게 취임한 이명근 신임 지휘자와 첫 만남을 갖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지휘과를 졸업하고,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에서 지휘과 디플롬 석사를, 미국 피바디 음대에서 지휘과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이명근은 지휘계의 대부 구스타브 마이어(Gustav Meier)로부터 '아주 재능 있는 젊은 지휘자, 그는 이미 위대한 아티스트'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첫 무대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이자 경성대학교 4학년인 김경희가 낭만파 시대의 대표적인 플루트협주곡 라이네케 '플루트협주곡 작품 283' 1악장을 들려준다.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천재현의 스메타츠 '비올라협주곡 라장조 작품 1' 1악장에 이어서는 역시 단원이자 부산대학교 2학년인 김가원이 모차르트 '혼협주곡 제4번' 1악장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이어지는 무대는 단원 이하원(경성대학교 4학년)과 정은희(부산대학교 4학년)가 생상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 모차르트의 '오보에협주곡 K.314' 1악장을 각각 들려주며, 현재 부산외국인학교를 휴학중인 박제인이 드보르작의 유일한 바이올린협주곡인 '바이올린협주곡 작품 53' 1악장을 연주한다. 경성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단원 염다은은 L.Grondahl '피아노를 위한 트롬본협주곡' 1악장을, 부산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김하나는 엘가의 '첼로협주곡 작품 85' 4악장을 들려주며, 단원이자 인제대학교 4학년인 심은아가 'Fantaisie sur Rigoletto(P. A. Genin 곡)'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4회 정기연주회

New Wave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5대 수석지휘자로 새롭게 취임한 김수현 지휘자 취임연주회로 마련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4회 정기연주회가 5월 3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신임 수석지휘자 김수현은 중앙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본격적인 지휘공부를 위해 도미, 인디애나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로 석사학위를, 일리노이 주립대학원에서 합창지휘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2014년 5월 귀국 후 월드비전 합창단 전임지휘자로 활동해왔다. 취임연주회에 맞추어 'New Wave'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 김수현 지휘자는 수준높은 선곡과 절제되면서도 힘있는 연주로 부산시민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우선 미사곡으로 꾸며지는 첫 무대 '1st Wave'에서는 가브리엘 포레의 모테트 'Tantum Ergo(지존하신 성체)', 리투아니아 출신의 작곡가이자 합창 지휘자인 미슈키니스의 'Missa Sancti Martini'를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와 독일 뒤셀도르프 Robert Schumann Musikhochschule Kirchemusik를 졸업하고 현재 은혜광성교회 지휘자로 있는 오르가니스트 조현우가 함께 한다.

자장가(이수인 곡), 가고파(이현철 편곡), 꽃타령(김수민 편곡) 등 우리 민요와 가곡을 들려주는 '2nd Wave'에 이어 '3rd Wave'에서는 뮤지컬 '사랑의 이모저모' 중 'Love Changes Everything', 'Beautiful City(아름다운 천국)'(Andre J. Thomas 곡), 뮤지컬 '올슉업(All Shook up)' 중 'Can't Help Falling in Love',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중 'When You Believe' 등 유명 뮤지컬 넘버와 흑인영가를 선곡,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앞으로 들려줄 다양한 연주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3rd Wave' 무대에 앞서서는 특별출연팀인 쥬빌레 클라리넷 앙상블이 축하무대를 갖는다. 쥬빌레 클라리넷 앙상블은 클라리네티스트 최우선, 최연주, 황수빈, 박관희 등 4명의 클라리네티스트들이 모여 창단한 '쥬빌레 클라리넷 4중주'와 부산, 경남 출신의 클라리네티스트 20명이 모인 '쥬빌레 클라리넷 콰이어'로 이뤄진 민간 연주단체로, 지난 2016년 2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클라리넷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드라마 '하얀거탑' 주제곡 'B Rossette', 엔니오 모리꼬네 '넬라 환타지아', 에이지 스즈키 'Foster Rhapsody'를 들려준다.

일시 5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할인 1천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7

Preview 7

5월 풍성한
문화예술축제의 현장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풍성한 문화예술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우선 지역 예술계의 원로 예술가들을 초청, 그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제4회 예인예술제'를 시작으로 부산지역 창작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펼쳐지는 무용 예술가들의 축제 '부산무용제',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종합예술축제 '제33회 부산청소년예술제'가 5월 한달간 펼쳐진다. 지역 예술계를 이끌어온 원로 예술가들의 예술혼 넘치는 무대에서부터 차세대 예술계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의 열정적인 무대까지 지역 문화예술계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확인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이다.

제4회 예인예술제

4월 29일(월)-5월 10일(금)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전시장

올해로 4회를 맞는 예인예술제는 지역 예술문화의 근원을 되짚어 보는 자리로 지역 부산 예술계를 이끌어온 원로 예술가들의 예술혼을 담은 다양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우선 부산예술회관 전시실에서는 예인미술전과 예인사진전이 펼쳐진다. '부산원로작가전'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예인사진전에서는 25년 이상의 화력을 지닌 원로작가 30명의 작품이 5월 3일까지 전시된다. 5월 6일부터 10일까지 '흔적, 그 기억'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예인사진전에서는 지난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부산의 지나온 발전상과 흔적들을 담은 귀한 사진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5월 2일 열리는 예인연극제에서는 부산 소극장 연극 운동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이성규 선생의 연출작 '백조의 노래'를 만날 수 있다. 체호프 원작의 '백조의 노래'는 일생 동안 울지 않다가 죽을 때 한 번 우는 백조의 노래처럼, 노배우의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과 무대에 대한 열정을 가슴 저리게 보여준다. 5월 3일 예인국악제에서는 부산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여성창무극 '놀보, 심술보 터졌다!'가 무대에 오르며, 5월 7일 예인영화제에서는 지역의 원로 영화인인 김사겸 감독이 회원들과 함께 제작한 단편영화 '공동구역'을 상영한다.

5월 8일 예인무용제에서는 '부산 춤의 텃밭을 일군 사람들'이라는 부제로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배혜경 선생을 비롯해 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 예능보유자 이성훈, (사)한국전통예술협회 부산지회장 양현숙 선생이 '황진이의 일생', '동래학춤', '조갑녀류 민살풀이춤'을 각각 선보인다. 또 이날 무대에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흥부가' 판소리 이수자인 김정애 선생이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이와 어사 상봉 대목'을 들려주며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5월 9일 열리는 '부산원로예술인의 전통가요무대'인 예인연예제는 원로 가수들이 출연해 귀에 익숙한 가요를 들려주며, 예인예술제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부산원로음악인들이 함께하는 예인음악제가 펼쳐진다. 이날 무대에서는 작곡가인 정원상, 강순희, 최삼화 선생의 창작곡과 함께 고정화, 나광자 선생의 피아노 연주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 부산예술회관 612-1372, www.bsart.or.kr

2019 부산무용제

5월 15일(수)-17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창작무용 경연을 통해 지역의 전문 무용단체와 무용인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해온 부산무용제는 부산의 대표적인 무용축제로, 5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다.

첫날인 15일에는 현대무용단 자유 'Direction C'와 부산발레연구회 'In The Beginning'이 무대에 오른다. 2017 제19회 전국차세대안무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이승윤이 안무한 'Direction C'는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감정의 성질을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이다. 제5회 부산무용제 '섬' 대상, 제5회 전국무용제 재주도지사상을 수상한 한철선은 창세기 기록을 3장의 창작발레로 풀어낸 'In The Beginning'을 선보인다.

16일에는 한국춤모임 짓의 '푸른 점, 취한 꽃', 댄스시어터 경희의 '인어공주를 위하여-편견'이 관객과 만난다. PAF평론가가 뽑은 안무가상을 수상한 배정현의 '푸른 점, 취한 꽃'은 인간의 욕망으로 고통받는 환경과 자연을 그린 작품이다. 인어공주를 현실로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들을 작품 속에 담은 '인어공주를 위하여-편견'을 안무한 박재현은 제3회 문화올림픽 세계델픽대회 한국인 최초 은메달, 제25회 부산무용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제24회 전국무용제 은상 및 연기상, 제14회 부산국제무용제 AK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 우수상, 2018 PAF 춤연기상을 수상한 손영일무용단 대표 손영일이 일상 속에서 스쳐지나가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치열하기만 한 현재를 그린 '그들만의 광기'를 선보인다. 이어지는 축하무대에서는 지난해 대상팀인 판댄스씨어터(안무/김수현)와 원로춤꾼 김진홍의 무대가 펼쳐진다. 문의 | 부산무용협회 632-5116

제33회 부산청소년예술제

5월 13일(월)-6월 1일(토) 부산예술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 예술을 이끌어갈 꿈나무들의 축제인 부산청소년예술제가 5월 17일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부산청소년음악제'로 막을 올린다. 부산예고, 브니엘예술고,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수상자 등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아름다운 선율을 합창, 오케스트라, 앙상블, 밴드공연 등을 통해 선사한다. 5월 25일 오후 5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의 무용 꿈나무들의 끼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무용예술제'가 펼쳐진다. '부산청소년연극제'는 5월 13일부터 30일까지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부산지역 8개 고등학교 연극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청소년연극제에 참가할 부산대표팀을 뽑는다. 부산문인협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시(詩)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문예창작 기회를 마련한 '청소년시낭송대회'를 5월 18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갖는다.

부산영화인협회가 마련한 '청소년, 영상으로 소통하다'에서는 영화 제작의 기초를 배워 볼 수 있는 '영화체험교실'을 올해부터 신설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작품을 상영하고 수상자를 가리는 '단편시나리오, 동영상 공모전'과 함께 5월 18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청소년들의 숨은 끼를 발산하는 장을 마련한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는 5월 11일 예선을 거쳐 5월 25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본선무대를 가진다.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는 6월 1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과 연습실에서 펼쳐져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청소년들이 건축 모형을 직접 제작하여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건축상상마당'은 5월 26일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및 공연장에서 특강과 함께 진행한다. '학생사진공모전'(5월 21일~25일)과 '학생그림공모전'(5월 23일~28일)은 부산예술회관, 부산시민회관 1층 전시실에서, 부산꽃예술작가협회가 마련한 '청소년꽃다발 만들기'는 6월 1일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문의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www.artpusan.or.kr

2019 제16회
부산국제연극제

매년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는 부산국제연극제가 5월 17일 그 화려한 축제의 문을 연다.

The 16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9

2019년 5월 17일(금)~26일(일)
영화의전당, KNN시어터,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센텀시티 일대
부산국제연극제 802-8003, www.bipaf.org

개막작 '세 형제'

올해로 16회를 맞는 부산국제연극제는 '부산 최대의 공연예술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에 스미는 예술로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축제, 시민들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위해 기존 광안리에서 진행되었던 거리극경연 프로그램 '다이나믹 스트릿(Dynamic Street)'을 공연장이 한 곳에 몰려있는 센텀시티 일대로 이전하고 프린지, 예술체험ZONE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번 2019 부산국제연극제에서는 영국,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스위스, 멕시코,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1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초청공연과 축하공연, 거리극 경연프로그램 '다이나믹 스트릿', 그리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초청공연으로 는 2019 부산국제연극제의 화려한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극단 도자두(브라질·프랑스)의 '세 형제(Frères de sang, 폐막작)', 게코 씨어터(영국)의 '결혼(The Wedding, 폐막작)'을 비롯해 국내 공연예술계의 독보적인 마리오네트 극단으로 자리매김한 극단 보물의 '어느 한 아부지(My Dear Father)', 어른들을 위한 인형극을 제작해 온 독일 멀린 퍼펫 씨어터의 '광대들의 집(Clowns' Houses)' 등 7개 작품이 선보인다. 특히 그동안 3차례나 참석해 부산관객과도 친숙한 극단 도자두는 올해 개막작인 '세 형제' 외에도 극단의 숨은 명작 '말 뒤의 말(Aux Pieds De La Lettre)'로 관객들과 만난다. 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동극 프로그램인 'BIPAF KIDS'를 통해서는 극단 보물의 마리오네트 공연 '목각인형콘서트', 이스라엘의 인형극 전문단체 더 키 씨어터의 인형극 '우리 모두가 잎사귀였을 때(When All Was Green)'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축하공연으로는 지난달 열린 제37회 부산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극단 동녘의 '썬샤인의 전사들'이 5월 21일과 22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시청각 장애우를 위한 자막 및 음성해설이 제공되는 배리어 프리 특별공연으로는 극단 보물의 '어느 한 아부지'가 선정되어 관극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초청, 언어와 시각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화합의 장을 도모하다. 이밖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는 매년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시민들의 열띤 경연의 장 '10분연극제(5월 24일~25일, 수영구 생활문화센터)'와 공연 관람 후 관객과 아티스트간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인 '아티스트 토크' 등이 마련되어 있다.

01

극단 도자두 '세 형제'(Frères de sang, 브라질·프랑스) 개막작
5월 17일(금)-19일(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브라질 출신의 아티스트가 주축이 되어 프랑스에서 결성된 극단 도자두는 주로 사회의 절망과 일상의 우울을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며 배우들의 신체나 마리오네트 등으로 극을 표현해 전 세계의 관객과 평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두 형제의 데면데면한 만남은 행복했던 그 시절을 함께한 세 형제의 어린 시절로 이어지지만 두 형제는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02

극단 보물 '어느 한 아부지'(My Dear Father, 한국)
5월 18일(토)-19일(일) 오후 5:00 KNN시어터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은 극단 보물은 국내 공연예술계의 독보적인 마리오네트 극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눈썹 하나의 섬세함, 수염 하나의 정교함을 간직한 목각 인형은 어깨춤을 추거나 엉덩이를 실룩거리는 사실적인 표현으로 신선한 충격을 선사한다. 아버지가 병에 걸려 죽자 소녀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신비의 열매를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나고 그 길에서 호랑이를 마주치는데….

03

극단 보물 '목각인형콘서트' (Marionette Concert, 한국) BIPAF KIDS
5월 19일(일)-21일(화) 오후 2:00 영화의전당 리허설룸

한국의 제페토 할아버지라 불리는 극단 보물의 김종구 대표가 직접 제작한 마리오네트 인형들이 펼치는 특별한 무대로 어린이관객들을 초대한다. 울창한 숲을 지키던 웅장한 나무에서 나무 토막이 되고, 마침내 움직일 수 조차 없이 작아져 버린 나무 조각들, 하지만 톱과 망치, 끌에 의해 나무 조각들은 하나 둘 생기 넘치는 마리오네트 인형이 되고 캄캄한 밤하늘을 닮은 극장에서는 오늘도 어린이 여러분을 위한 콘서트 준비로 분주하다.

04

극단 도자두 '말 뒤의 말'(Aux Pieds De La Lettre, 브라질·프랑스)
5월 21일(화)-22일(수) KNN시어터

'편지의 끝, 상대방에게 별 의미 없이 덧붙인 말'이라는 뜻을 지닌 이 작품의 원제 'Aux Pieds De La Lettre'는 작품 속 메시지를 반어적으로 비유하는 말로, '말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속뜻이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창작을 위한 예술가들의 혈투와도 같은 고뇌를 오직 신체의 언어로 표현한 극단 도자두의 숨은 명작이다.

05

멀린 퍼펫 씨어터 '광대들의 집'(Clowns' Houses, 독일)
5월 23일(목)-25일(토) 오후 7:30 KNN시어터

1995년에 설립된 멀린 퍼펫 씨어터(Merlin Puppet Theater)는 마법사 멀린(Merlin)의 초인적인 힘에 의해 조종되는 인형(Puppet). 즉, 실제 배우가 해낼 수 없는 역할을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인형을 표현함으로서 그들만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2012년 베를린에서의 초연 이후 첫 내한공연으로 선보이는 '광대들의 집'은 영국의 시인 Edith Sitwell의 'Clowns' Houses'를 모티브로 외로움, 탐욕, 절망 등 현대인의 삶에 대한 다섯 가지 이야기를 담은 오직 어른들을 위한 인형극이다.

06

더 키 씨어터 '우리가 모두 잎사귀였을 때' (When All Was Green, 이스라엘) BIPAF KIDS
5월 23일(목)-25일(토) 오후 2:00 영화의전당 리허설룸

올해 부산연극제를 통해 첫 내한 및 초연공연을 갖는 어린이 관객들을 위한 인형극 전문 단체더 키 씨어터(The Key Theater)는 지난 1998년 설립된 후 주로 동화와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소 과소평가되는 아동극과 인형극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무대에 올린 'When All was Green'은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의 초청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에서 8개의 상을 휩쓰는 쾌거를 이뤘다.

07

[폐막작] 더 게코 씨어터 '결혼'(The Wedding, 영국) 폐막작
5월 25일(토)-26일(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영국 최고의 피지컬 씨어터인 더 게코씨어터(Gecko Theater)는 도마뱀(Gecko)의 꼬리처럼 끈질긴 생명력과 무한한 예술성을 바탕으로 감정과 신체에 초점을 두고 기발한 움직임과 독특한 음악, 비일상적인 이미지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왔다. 이번 작품에서는 타인과의 수많은 관계를 '결혼'이라는 계약에 빗대어 현대인들에게 '관계와 계약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부산시립극단 '물의 정거장'

자신의 존재방식을 생각하게 하는 연극

국민일보 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장지영**

일본 극단 전형극장이 1988년 9월 서울올림픽 문화축전의 일환으로 선보인 <물의 정거장>은 한국 연극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연극이지만 대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사가 중심인 희곡의 무대화를 연극으로 생각해온 한국 관객들에게 배우들의 느린 움직임으로 일관된 공연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전형극장을 이끈 오타 쇼고(1939~2007)는 일본을 넘어 세계 연극계에 '침묵극'으로 한 획을 그은 극작가 겸 연출가다. 그의 대표작인 <물의 정거장>의 당시 한국 공연은 부산과 서울에서 이뤄졌다. 국내 초연이 이뤄졌던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이 작품이 31년만에 부산시립극단 기획공연으로 다시 선보여졌다.

무대는 생활 폐기물들이 쌓인 황량한 수돗가.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끊임없이 물줄기가 흘러내린다. 수돗가에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관객은 불안, 사랑, 고독, 갈등, 죽음 등 삶의 다양한 편린들과 마주하게 된다. 오타는 극의 템포를 '2미터를 5분 동안 걷는 정도의 속도'로 지시해 놓았는데, 천천히 걷는 수준을 넘어 슬로비디오처럼 매우 느리게 이동해야 한다. 배우들도 고역이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관객에게도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대신 평소의 속도라면 그냥 지나쳤을 움직임이나 표정이 예민하게 다가온다. 일본의 연극 평론가 센다 아키히코가 지적했듯 침묵은 우리들이 되도록 회피하고 싶은 우리들 자신의 공백과 대면하게 만든다.

오타는 1960~70년대 일본 연극계의 흐름을 바꾼 '앙그라(언더그라운드) 연극' 세대에 속한다. 당시 번역극과 사실주의 연극 위주의 기성 연극에 반발해 등장한 앙그라 연극은 실험적인 젊은 극작가와 연출가들을 대거 배출했다. 그런데, 오타가 침묵극을 처음부터 표방했던 것은 아니다. 젊었을 때 반정부 학생운동과 농민운동에 투신했던 그는 자신의 언어가 현실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 수많은 대사로 이뤄진 연극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신만의 연극 언어를 고민하던 그가 침묵극으로 향하게 된 계기는 일본의 전통극 노(能)와의 만남이었다. 14세기에 지금의 예술 형식이 완성된 노는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많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노를 접한 사람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을 만큼 노의 움직임은 느리고 압축적이다. "침묵보다 강렬한 언어는 없다"고 깨달은 오타는 대사를 줄여가기 시작했다. 1977년 초연된 <코마치후덴>은 바로 오타의 침묵극의 출발점이다. 주인공인 노파 코마치가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인생을 사유하는 작품으로 코마치의 대사를 침묵으로 처리했다. 배우들의 움직임 역시 느리다. 그런데, 대사와 침묵이 섞여있는 이 작품은 엄밀히 말하면 오타가 원작 희곡에 대사를 썼다가 실제 공연에서 침묵으로 바꾼 것이다.

오타는 <코마치후덴>으로부터 4년 뒤인 1981년 <물의 정거장>으로 침묵극을 완성했다. 이 작품은 국제적으로 큰 호평을 받

아 세계 24개 도시에서 200회 이상 공연을 가졌다. <물의 정거장>을 시작으로 1985년 <흙의 정거장>, 1986년 <바람의 정거장>을 '침묵극 3부작'으로 부른다. 그리고 1992년 또다른 침묵극인 <모래의 정거장>이 발표됐다. 침묵극 3부작 이후 오타의 후기 작품에는 다시 대사가 등장한다. 1986년 <화살표>, 1987년 <물의 휴일>, 1994년 <엘리먼트> 등 '화살표 3부작'과 1992년 <사라치(빈 집터)>가 대표적이다. 텍스트를 의식적으로 인용 및 반복하는 수법으로 인간의 존재감을 되새겨볼 수 있게 한다.

한국에서 <물의 정거장>이 초연된 이후 오타는 한국 연극계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1994년 한·중·일 3국 연극인들이 뜻을 모아 베세토 연극제가 출범한 뒤 이듬해 2회 연극제에 처음으로 3국 합작연극이 올라갔다. 바로 3국 배우들이 출연한 오타의 <물의 정거장>이었다. 또 2000년 서울연극제에 초청된 오타는 <사라치>를 한국 배우들과 공연했다. 그가 1990~2000년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쇼난다이문화센터의 예술감독으로 재직할 때 1995년 김아라의 <이디푸스의 여행> 등을 초청했다.

오타와 친분이 두터웠던 김아라는 2009년 <물의 정거장>, <바람의 정거장>을 내놓은 데 이어 2011년 <모래의 정거장>, 2013년 <흙의 정거장>까지 정거장 연작을 선보였다. 특히 <모래의 정거장>은 오타를 기리는 한·일 합작으로 이뤄졌다. <사라치>는 한국 초연 이후 2012년 서울연극제, 2015년 2인극 페스티벌 등을 통해 관객과 만났다. 또 이윤택이 2011년 <코마치 후덴>을 처음 선보인 뒤 여러 차례 재공연했다. 다만 이윤택은 오타의 대본에서 지문까지도 배우에게 직접 말하도록 함으로써 원작과 달리 수다스러운 연극으로 만들었다.

사실 일본에서는 오타의 작품이 2000년대 이후엔 그다지 공연되지 않았었다. 오히려 한국에서 그의 작품이 지속적으로 공연된 편이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영국, 네덜란드, 인도,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약속이나 한 듯 오타의 작품을 잇따라 무대에 올리고 있고, 일본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특히 침묵극을 대표하는 <물의 정거장>은 최근 오타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 속에서 가장 자주 무대에 오른다.

부산시립극단의 <물의 정거장>은 일본에서 극단 세아미를 이끄는 배우 겸 연출가 김세일이 객원 연출로 참여했다. 극단 배우 11명과 세아미 배우 6명이 참여한 이 공연에 대한 한국 관객의 반응은 신선함과 낯섦, 흥미로움과 단조로움 등 극단적으로 나뉘었다. 요즘 관객의 감각으로는 연극의 느리디느린 속도감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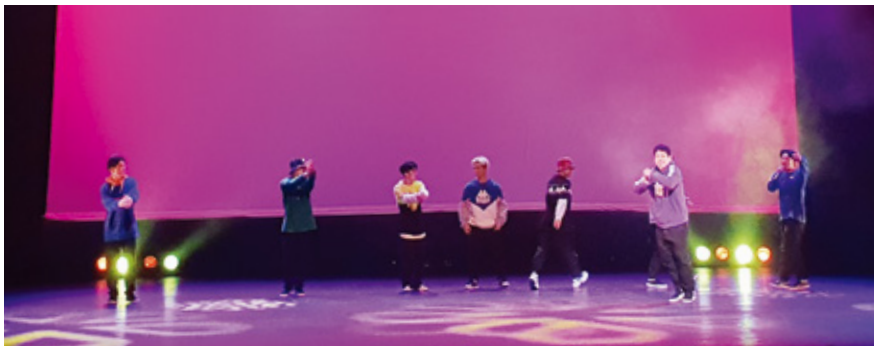
김세일은 이번에 오타의 대본을 충실히 재현하려 했다. 앞서 김아라나 이윤택이 오타의 대본을 재구성 또는 각색하거나 움직임의 속도를 조정한 것과 다르다. 그런데, 부산시립극단 배우들이 '비움'에 익숙치 않은 만큼 느린 움직임에 천착하다보니 관객이 뒤쫓아갈 수 있는 극적 환경을 유연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배우들이 언어가 달라도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작품 안에서 함께 연기하는 모습은 오타의 '언어를 배제한 소통'의 의미를 실감하게 만든다.

오타는 현대 서양 연극이 극적 묘사를 위해 인간의 삶에서 의미가 적은 부분을 삭제, 요약, 개념화 한다고 봤다. 이런 방식의 소통은 인간의 다양한 존재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타가 선택한 것이 바로 침묵이며, 관찰자인 관객들은 무대 위에 펼쳐지는 배우들의 모습에 집중해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

오타의 <물의 정거장>은 예전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지만 처음 접하는 관객들에겐 여전히 깊은 인상을 남긴다. 물론 사건이 병렬적으로 진행되다보니 관객은 파편적인 이미지들로 작품을 기억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오타의 침묵극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관객에게 자신의 존재방식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으로도 이 작품의 의미는 충분하다.

현대무용협동조합 '가을운동회'

즐겁지만 않은 운동회의 기억



춤 비평가 **이상헌**

누구나 운동회를 특별하게 기억하는 것은 억압적 교육체제에서 그나마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속에도 사회적 위계는 여전히 존재했다. '가을 운동회'라는 제목에서 즐거움 뒤에 숨은 사회적 위계를 비트는 재미를 기대했다. 도입부에 해당하는 국민의례, 교장선생님 말씀과 국민체조는 운동회 이면의 권력 작동을 희화화해 무력화하는 시도로 보였다.

이런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또 하나는 이어달리기다. 이 군무는 달리기의 사회적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이유 없는 달리기가 규칙과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이기에 우리 사회는 목적 없는 달리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주인공 포레스트는 사랑하는 이가 죽은 후 달리기 시작한다. 달리기가 계속되자 사람들은 그 이유를 궁금해 하지만 설명하지 않는다. 결국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함께 달린다. 개인이 자유의지로 시작한 행위가 어떤 식이든 목적을 달고 나서야 사회적으로 수용된 것이다. 이처럼 달리기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경쟁이기에 운동회에서 달리기는 빠질 수 없는 경쟁의 하이라이트가 된다. 그런데 '가을 운동회'의 달리기에는 경쟁이 없다. 한 사람이 뛰고 이어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돌고 도는 달리기가 이어진다. 목적 없는 달리기는 신나는 자유의지의 표출이고 경쟁을 배제한 놀이가 된다. 팸플릿에서 이 작품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공동체의 연결망을 표현'하고 '운동회가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 낸다고 말한다. 그런데 작품에서 추구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공동체 논의의 폭은 매우 넓고, 공동체마다 필요한 소통 방식이 다르다. 공동체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작품의 중요한 메시지인 소통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운동회의 다른 면을 전복적으로 드러내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 작품을 감상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한 쪽은 현대무용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관객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춤에 관련된 관객 입장이다. 일반 관객에게 '운동회가 주는 도전과 화합,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대중과 함께'하려는 현대무용협동조합의 기획 의도는 어느 정도 통했다. 공개방송을 진행하듯 사회자가 관객의 호응을 끌어내고 비보이 공연이 더해져 현대무용의 심각함과 무거움을 최소화했다. 객석 반응은 좋았고, 관객과 대화 시간까지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단체가 의기투합한 '현대무용협동조합'의 작품에 기대가 컸지만, 기량과 맥락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구성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사회자가 작품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면서 간간이 재미를 줘야 하는데, 공연 흐름을 끊고 재미와 호응을 지나치게 유도하는 바람에 전체 맥락을 흩트리는 요인이 됐다. 대중과의 소통을 전면에 내세운 기획이라 해도 재미(소통)와 의미는 양자택일이 아니고 기우뚱한 균형의 비율을 어떻게 조절할지의 문제다.

현대무용협동조합은 무용이 어렵다는 대중의 인식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시작했고, 이에 호응한 부산문화회관이 작품을 초청했다.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무용의 확산을 위해서 이런 시도는 소중하다. 남은 것은 노력과 시도의 성과를 볼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과 환경을 함께 만드는 일이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아빠!! 우리같이 놀자~'

일 시 4월 9일(화)-6월 16일(일) 오전 11:00 (월요일 공연 없음)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창작뮤지컬 '아빠!! 우리 같이 놀자~'.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빠 흥부는 아내의 가사일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아주 적극적이다. 반면 가사와 육아에는 전혀 관심 없는 놀부. 아이 일곱을 낳아도 남편의 외조로 항상 행복해 보이는 흥부 처와 아이 하나를 낳고도 관절염과 마음고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놀부처. 흥부와 흥부처는 놀부를 변화시키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준비하는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일 시 5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수준높은 앙상블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실내악 공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수석 서은아, 바이올린 부수석 우소라, 비올라 단원 홍영선, 첼로 부수석 김판수로 구성된 현악 4중주의 무대와 플루트 수석 이화영, 하프 수석 김영림의 플루트와 하프 듀오무대, 악장 임흥균, 바이올린 수석 이은옥, 비올라 부수석 이성호, 첼로 수석 이일세, 클라리넷 수석 장재혁으로 구성된 클라리넷 5중주의 무대가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수미 콘서트 'Mother Dear'

일 시 5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VIP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전 세계 음악팬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소프라노 조수미 콘서트 'Mother Dear'.
과천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재)국립오페라단 부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최영선이 이끄는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테너이자 록 기타리스트인 페데리코 파치오티가 함께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가정의 달 5월에 어울리는 'Mother Dear'라는 테마로,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특별하고 애틋한 마음과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찬사를 음악에 담아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느껴볼 수 있다.

우현수 더블베이스 귀국 독주회

일 시 5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우현수 010-4096-9324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DCMF(대구국제현대음악제) 앙상블 멤버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블베이시스트 우현수 귀국 독주회.
대구시립교향악단, 포항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무대로 일찍이 음악성을 인정받은 우현수는 계명대학교 졸업 후 도독,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했으며, 독일 유학 당시 독일, 스위스를 중심으로 연주활동을 펼쳤다. 2014년 귀국하여 강릉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연주활동을 시작한 우현수는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유스오케스트라 강사, 노보필하모니오케스트라 객원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 피아노/정승원 ● 첼로/김민승

어버이날 효도 큰 잔치

일 시 5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문 의 락음국악단 010-6888-9110

지난 2007년 4월 국악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창단된 민간국악단인 락음국악단이 매년 5월 어버이날을 맞아 마련하는 '어버이날 효도 큰 잔치'.
'즐겁고 행복한 음악 예술'을 뜻하는 락음(樂音)국악단은 그동안 이름에 걸맞는 다양한 무대로 대중과 소통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신명넘치는 민요와 거문고 병창, 판소리 등으로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판소리 '춘향가' 중 '집장가', 양산도·경복궁타령, 회심곡, 비나리, 거문고 병창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경기민요 '금강산타령, 노래가락, 청춘가, 사발가, 베틀가, 태평가, 창부타령', 뱃노래·자진뱃노래

이은옥 바이올린 리사이틀
Vocalise I

일 시 5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옥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대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독일 유학 당시 여러 연주회를 통해 곡해석의 탁월함과 출중한 연주 실력으로 현지 언론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은옥은 귀국 후 오케스트라 수석연주자, 챔버앙상블 리더, 그리고 솔리스트로서 끊임없이 청중과 교감해오고 있다.
이은옥은 2008년 'Ensemble di Mare', 2011년 'Sento Chamber Society'를 창단, 다양한 형태의 실내악 연주를 기획, 연주해오고 있으며 동아대학교와 동의대학교 겸임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경남여고 수정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발표회

일 시 5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경남여고 수정합창단 010-4872-9568

지난 1979년 4월 창단된 후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경남여고 수정합창단의 무대.
경남여고 동문들로 구성된 수정합창단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산합창제, 부산시민합창제, 부산 시내동문 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에 출연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국립합창단이 주최하는 전국골든에이지 합창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지휘/조익래
- 반주/김은실
- 해설 및 진행/박시현
- 소프라노/김성은
- 찬조출연/경남여고 재학생 중창단, 난타반

김윤희 플루트 독주회 The Variety of Flutes

일 시 5월 11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김윤희 010-6516-9838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윤희의 7번째 독주회.
부산예고, 연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재학 중 도미, 신시내티 음악대학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석, 박사과정을 졸업한 김윤희는 이번 무대에서 'The Variety of Flutes:Low to High(저음부터 고음까지 다양한 플루트 악기들)'이라는 부제로 베이스 플루트와 알토 플루트, 플루트, 피콜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1부에 연주되는 작품들은 모두 국내 초연작이다.

- 피아노/서혜리
- 클래식기타/고충진

부산장로성가단 제18회 정기연주회

일 시 5월 13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장로성가단 010-4577-9884

지난 1986년 11월 김현주 장로를 초대단장으로장로 26명으로 결성된 후 이듬해인 1987년 5월 창단기념공연을 가진 부산장로성가단의 18번째 정기연주회.
그동안 부산은 물론 서울, 광주, 대구, 인천 등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을 가져온 부산장로성가단은 지난 1990년 제1차 해외찬양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등 14차례 해외연주를 통해 찬양과 선교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1994년 1집 음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1개의 음반을 발매한 바 있다.

- 지휘/김일연
- 반주/조정주

소프라노 박은주 독창회

일 시 5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부산문화 1600-1803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박은주 독창회.
부산대학교 성악과을 졸업하고 도독, 쾰른국립음대 성악과에서 디플롬과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친 박은주는 1991년 에리카 쾨트 성악콩쿠르 1위, 1994년 룩셈부르크 국제 콜로라투라 성악콩쿠르 장려상, 1995년 로베르트 슈톨츠 콩쿠르 관객상, 1998년 브레머하펜 관객상 등을 수상했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 극장에서 능숙한 고음처리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유럽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박은주는 현재 부산대학교 성악과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이화영선

제8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5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www.johnlee.or.kr 응모 후 추첨)
문 의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637-0125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故 이태석 신부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나눔문화의 활성화와 클래식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하는 제8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어린 시절부터 작곡에도 재능을 보이며 성가, 동요를 작곡하기도 했던 이태석 신부는 톤즈 마을에서 교육, 종교, 의료봉사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관악단 지도를 할만큼 음악적 소양이 깊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소프라노 김성혜,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테너 신동원, 바리톤 최종우가 고 이태석 신부의 헌신적인 나눔 정신을 노래와 음악으로 전한다.

2019 부산무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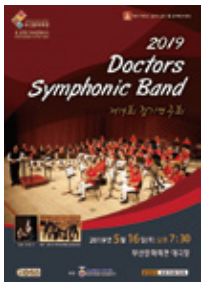
일 시 5월 15일-17일 수-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3일 관람권)
문 의 부산무용협회 632-5116

창작무용 경연을 통해 지역의 전문 무용단체와 무용인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해온 2019 부산무용제.
10월에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부산대표팀을 선발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무용축제로, 올해는 현대무용단 자유와 부산발레연구회, 한국춤모임 짓, 댄스시어터 경희, 손영일무용단 등 5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다.

15일 현대무용단 자유 'Direction C(안무/이승윤)', 부산발레연구회 'In The Beginning(안무/한철선)'
16일 한국춤모임 짓의 '푸른 점, 취한 꽃(안무/배정현)', 댄스시어터 경희의 '인어공주를 위하여-편견(안무/박재현)'
17일 손영일무용단 '그들만의 광기(안무/손영일)', 축하공연(판댄스씨어터, 원로춤꾼 김진홍)

2019 닥터스 심포닉 밴드 제19회 정기연주회

일 시 5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닥터스심포닉밴드 010-9458-9258



지난 1999년 부산, 경남지역의 의사, 치과의사로 결성된 닥터스 심포닉 밴드의 2019년 정기연주회.
닥터스 심포닉 밴드는 치료를 통해 아픈 사람을 돌보고 보듬듯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를 통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무대를 선사해오고 있다.올해로 19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을 통한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정홍기
- 협연/경남프리모앙상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1회 정기연주회 목소리

일 시 5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유작 '화염 속의 천사와 에필로그'를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1회 정기연주회 '목소리'.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올리스트 김상진,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임홍균,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 박민희,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윤이상의 '화염 속의 천사와 에필로그'를 비롯해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차이콥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들려준다.

김유빈 귀국 피아노독주회

일 시 5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김유빈 010-8507-6515

서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도독,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석사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유빈 귀국 독주회.
제18회 Pietro Argento International Competition 3위, 2018 이탈리아 나폴리 국제 어워즈 1위에 입상했으며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클라라하스킬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에 참가하며 연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져온 김유빈은 Gioia del Colle 극장(이탈리아), Rheinsberg 아카데미, 라이프치히 슈만하우스, Gohliser Schlösschen Leipzig, Markkleeberg, Polenz 등에서 독주회를 가지며 폭 넓은 연주 경력을 쌓아왔다.

참사랑 패밀리 콘서트

일 시 5월 18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김태건 010-3879-2487

아마추어 예술인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연을 한 자리에서 보게 함으로 클래식의 저변 확대에 힘써온 아가페 문화 예술원이 마련하는 참사랑 패밀리 콘서트.
아가페 문화 예술원은 그동안 각 팀의 전문 예술인과 아마추어 예술인을 연결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한편, 다양한 무대를 통해 클래식의 깊은 매력을 전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아가페 남성 중창단, 아가페 오케스트라가 출연, 남성 중창과 혼성 중창, 트럼펫 앙상블, 바이올린 독주, 오케스트라 연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연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스타인웨이 위너콘서트 인 코리아 전국 투어 에릭 루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5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주)더블유씨엔코리아(747-5505)

세계적인 명성의 피아노 회사인 스타인웨이가 국제 피아노 콩쿠르 수상자 가운데 뛰어난 수상자들을 선발해 마련하는 '스타인웨이 위너 콘서트' 2019년 무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2018 리즈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인 에릭 루의 무대로 마련된다.
지난해 열린 리즈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엄청난 장엄함으로 숨을 멎게 만들었던 연주'라는 호평을 받으며 우승을 거머쥐었던 에릭 루는 현재 미국 커티스 음악원에 재학중이다.
에릭 루는 이번 무대에서 슈만과 브람스, 헨델과 쇼팽의 작품을 모두 아우르는 다채로운 음악 세계를 선보인다.

복스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추모연주 모차르트 레퀴엠

일 시 5월 19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복스앙상블 010-3576-9495

천주교 부산교구 남성들로 구성된 부산 가톨릭 남성중창단 복스앙상블(Vox Ensemble)의 6번째 정기연주회.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추모연주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아마빌리스 여성중창단의 협연으로 모차르트 '레퀴엠'을 들려준다.

- 지휘/이성철
- 피아노/김효성
- 오르간/김주현
- 소프라노/이정아
- 앨토/박소연
- 테너/장지현
- 베이스/박순기
- 연주/움 챔버 오케스트라
- 협연/아마빌리스 여성중창단

인코리안 오케스트라 협연 부산예술가곡 5주년 연주회

일 시 5월 19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부산예술가곡 성악아카데미 010-3884-4623

지난 2014년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부산예술가곡(대표/조신미)의 5주년 기념 연주회.
지휘자 윤상운이 이끄는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부산예술가곡 회원들이 출연,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소프라노/최성자, 김정자, 박성애, 양미진, 김민주, 김삼도, 이글라라, 김균해
- 메조소프라노/임명자, 강서양(우정출연)
- 테너/강양수, 박근태, 안병규, 양수배
- 바리톤/배용, 정량부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5 오페라 이야기 II

일 시 5월 22일 수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그동안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마티네 콘서트 시즌 5 '오페라 이야기' 두번째 무대.
경상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이동신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왕기헌, 테너 전병호, 바리톤 김종표, 베이스 박상진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19세기 벨칸토 오페라의 대명사 도니제티의 대표작 '사랑의 묘약',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돈 파스콸레'의 유명 아리아를 들려준다.

- 지휘/이동신
- 해설/손지현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57회 정기연주회

일 시 5월 22일-23일 수-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부산피아노듀오협회 010-5044-5320, 010-4242-8902

지난 1990년 국내에서 최초로 창단된 피아노 듀오단체인 부산피아노 듀오협회 정기연주회.
창단 이후 매년 두차례 정기 연주회와 해외 초청연주회를 통해 피아노 듀오음악의 연구, 보급 및 젊고 역량 있는 신인들의 데뷔 무대를 만들어 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는 이번 무대에서는 첫날인 22일에는 피아니스트 이은정, 정광민의 듀오무대가, 23일에는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콩쿠르 대상 수상자인 김인영&전성아를 비롯해 정지혜&홍선화, 이요한&이효연, 배성은&박아연, 서숙지&이정아, 박정난&조은주, 최지은&박정희의 듀오무대가 펼쳐진다.

황성훈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5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마리아 카날스 콩쿠르, 에피날 국제콩쿠르, Porto 국제콩쿠르, 타이완 국제콩쿠르 등 41개의 국제콩쿠르를 석권한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황성훈 리사이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이태리 산타 체치리아 국립음악원을 최고점수로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에꼴 노르말 음악원에서 Perfectionnement 과정을 이수한 후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황성훈은 바로크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방대한 레퍼토리의 소유자로, 모든 장르에 탁월한 대형피아니스트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다.
황성훈은 현재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가족뮤지컬 '아주 특별한 선물'

일 시 5월 24일 금요일 오후 8:00, 25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만 5세 이상 입장가능)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정통 합창음악에서부터 창작합창, 가요합창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합창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부산시립합창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한 가족뮤지컬 '아주 특별한 선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뮤지컬 '아주 특별한 선물'은 자가 면역질환인 1형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한 어린이가 가족과 친구, 이웃들의 배려 속에서 다시 희망을 품게 된다는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지휘/전진(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 연출/양수현
- 극본/이수
- 작곡/김미선

임재홍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5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임재홍 010-4876-4592

'뛰어난 기교, 호소력 짙은 소리와 더불어 도전적이고 열정 가득한 연주를 보여주는 천부적인 재능의 소유자'라 평가받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 독주회.
매년 수회의 독주회와 초청연주를 통해 끊임없는 예술적인 감각과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의 진면목을 선보여온 임재홍은 현재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악장, 부산 클래시컬 뮤직소사이어티 대표, 경남솔로이스츠 리더로 활동중이며 동아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나정혜

부산음악사랑회 제13회 정기연주회

앙상블과 함께하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5월 25일 토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음악사랑회 010-9692-3973

지난 2005년 7월 창립된 후 정기연주회, 여름음악회, 가을음악회, 송년(신년)음악회 등 매년 4차례 이상 연주회를 가져온 부산음악사랑회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친숙한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필로스앙상블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 소프라노/이영림, 김외숙, 배화자, 홍성희
- 메조소프라노/김영신
- 테너/정경일 ● 바리톤/송은섭, 한성권, 황우상
- 베이스/손영수, 정광덕 ● 클라리넷/윤수천
- 연주/필로스앙상블(바이올린 우소라, 김은아, 비올라 신지현, 첼로 우리라, 오보에 류재환, 피아노 이하승)

2019 부산사랑 음악회 부산 유라시아 그리고 북극항로

일 시 5월 26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 의 부산MBC 760-1093

지난해 인류의 우정과 협력을 기치로 창단된 유라시아 오션 필하모닉오케스트라(EOPO)의 무대.
세계무대에 진출한 부산 출신의 연주자들과 유럽, 아시아, 러시아, 아메리카 등 세계 각국의 우수한 아티스트 100여명으로 구성된 유라시아 오션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부산 유라시아 그리고 북극항로'라는 테마로 부산을 세계음악의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한 글로벌 축제 한마당을 펼쳐오고 있다.
예술감독 오충근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종신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 작품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최지수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5월 26일 일요일 오후 3:0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최지수 010-3510-6305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부속 중앙음악학교 및 우칠리쉬, 한국예술종합학교 우수장학생으로 조기졸업하고 현재 미국 클리블랜드 음대 석사(MM과정)에 재학 중인 최지수 바이올린 독주회.
최지수는 난파음악콩쿠르 최우수상, 학생음협콩쿠르 1위, 한음콩쿠르 1위, 비엔나국제음악콩쿠르 한국예선 1위, 코리아헤럴드콩쿠르 1위 없는 2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그동안 연천 DMZ 국제음악아카데미 라이징스타 연주회, 서울신인음악제, 모스크바 라흐마니노프홀 우수학생 연주회, 모스크바 국립오케스트라와, 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EOPO Chamber Music '실내악으로의 초대'

일 시 5월 27일 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클래식 월드스타들이 펼치는 감동의 음악 항해, 2019 유라시아 오션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EOPO) Chamber music '실내악으로의 초대'.
전 세계 탑 클래스 오케스트라의 악장과 수석연주자들이 대거 출연, 탄탄한 앙상블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예술감독/오충근
- 바이올린/박지윤, 김재원
- 비올라/이승원
- 첼로/김민지
- 더블베이스/성민제
- 플루트/오신정
- 오보에/아오야마 사토키
- 클라리넷/백동훈
- 바순/최영진
- 호른/김홍박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19 솔로이스트들의 축제

일 시 5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 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

부산지역 유망 연주자들의 등용문인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9 솔로이스트들의 축제'.
미래의 음악계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음악인을 발굴, 육성하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매년 차세대 연주자들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로, 협연자 선정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9명의 연주자들이 신임 수석지휘자 이명근과 첫 만남을 갖는다.

- 지휘/이명근(수석지휘자)
- 협연/김경희(플루트, 경성대학교 4학년), 천재현(비올라, 부산대학교 졸업), 김가원(호른, 부산대학교 2년), 이하원(바이올린, 경성대학교 4년), 정은희(오보에, 부산대학교 4년), 염다은(트롬본, 경성대학교 4년), 심은아(플루트, 인제대학교 4년), 박제인(바이올린, 부산외국인학교 휴학), 김하나(첼로, 부산대학교 2년)

클라라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연주

클라라와 친구들

일 시 5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고태욱 010-7742-0556

지난 2010년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연구한 작품들을 발표해온 K.P.S가 올해 클라라 슈만 탄생 20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피아니스트 이한나, 고태욱, 정다운, 신현희, 윤선혜, 박보경이 당대 최고의 여류작곡가이자 연주자였던 클라라 슈만의 작품과 함께 슈만, 브람스의 작품 등 낭만파 음악을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4회 정기연주회
New Wave

일 시 5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부산 문화가 있는 날 1천원)
문 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7

신임 김수현 수석지휘자 취임연주회로 열리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4회 정기연주회 'New Wave'.
수석지휘자 김수현은 중앙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도미, 인디애나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로 석사학위를, 일리노이 주립대학원에서 합창지휘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2014년 5월 귀국 후 월드비전 합창단 전임지휘자로 활동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수준 높은 미사곡으로 꾸며지는 첫 무대 '1st Wave'에 이어 '2nd Wave'에서는 우리 민요와 가곡, '3rd Wave'에서는 유명 뮤지컬 넘버와 흑인영가를 들려준다.

- 협연/쥬빌레 클라리넷 앙상블, 조현우(오르간)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9 시민뜨락축제

일 시 4월 19일(금)-5월 24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2:20 야외광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가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대표적인 야외무대축제 '2019 시민뜨락축제'.
지난 2017년 (재)부산문화회관과의 통합기념으로 시작된 '시민뜨락축제'는 클래식에서부터 국악, 무용,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시민들과 만나왔다.

5월 3일(금) 부산시립무용단
5월 10일(금) 전자현악팀 '리즈', 코미디언인 나일준
5월 17일(금) 부산직장인밴드 애플파이, 로르노아(카메룬), 칼라시마(이탈리아)
5월 24일(금)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호주에서 온 세계 최고의 서커스 BACKBONE

일 시 5월 1일 수요일 오후 2:30, 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만5세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태양보다 강렬한 서커스'로 호평받는 호주 최고 권위의 현대서커스단 'Gravity & Other Myths'가 선사하는 'BACKBONE'.
'BACKBONE'은 제목이 말해주듯 인간의 힘과 한계를 시험하는 예술서커스로, 시적이면서도 스펙터클하고 유머러스한 시나리오 안에서 퍼포머들은 나무막대, 흙, 양동이 등 최소한의 소품을 이용하여 서로간의 신뢰와 완벽한 집중력만을 바탕으로 힘과 인내력의 한계를 끊임없이 테스트한다.

최희연 해금독주회 XII
해금위드

일 시 5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최희연 010-2567-1648

끊임없이 도전하는 해금연주가 최희연의 12번째 독주회.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박사(DMA)를 취득한 최희연은 그동안 독주회를 비롯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립부산국악원,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해금연구회, 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 효원국악관현악단 등과 다수 협연무대를 가졌으며, 제43회 부산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해금 위드'라는 타이틀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해금 독주곡으로 시작하여 해금과 25현 가야금, 해금과 피아노, 해금과 첼로, 해금과 해금앙상블 등 다양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정태춘 박은옥 40주년 전국투어 콘서트
날자, 오리배

일 시 5월 10일 금요일 오후 8:00, 11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A석 7만7천원
문 의 (주)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02-541-7151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는 정태춘·박은옥 부부의 전국투어 콘서트.
서정성 가득한 시적 언어로 자기 내면의 이야기에 충실했던 아웃사이더 싱어송라이터에서 시대의 분노와 저항에 함께 한 메신저, 그리고 다시 은둔한 가객 정태춘이 긴 세월동안 그와 함께 해왔던 동반자 박은옥과 함께 자의식 강한 서정의 노래들과 뜨거운 격정의 노래로 깊은 울림의 40년을 다시 소환해낸다.
지난 40년을 추억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찬 날갯짓이 될 이번 무대는 특히 정태춘, 박은옥 그리고 그들의 음악과 함께 했던 이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헌정이자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진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부산월드뮤직페스타

일 시 5월 16일-17일 목-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세계 각국의 음악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부산월드뮤직페스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주최하는 서울뮤직위크(SWM)와 함께 진행하는 무대로, 체코 밴드 '미디 라비캐드(Mydy Rabycad)', 아르헨티나 출신의 일렉트릭 꿈비아의 1인자 '라 예그로스(La Yegros)', 이탈리아의 인기밴드 '칼라시마(Kalascima)', 카메룬 출신의 다재다능한 가수 '로르노아(Lornoar)' 등 월드뮤직과 일렉트로팝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자들을 만날 수 있다.

- 16일 출연/라 예그로스, 미디 라비캐드
- 17일 출연/칼라시마, 로르노아

기타공연장

음악 | Music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1일 Busan Classical Music Society의 밤
부산지역의 문화부흥과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지난 2018년 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꾸준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Busan Classical Music Society(BCMS)의 무대.

프로그램
드보르작/피아노5중주 제2번 작품 81
브람스/현악6중주 제1번 작품 18
- 바이올린/임재홍(음악감독), 김유리
- 비올라/김은진(대표), 김민경
- 첼로/이일세, 정지은
- 피아노/김정권

8일 클라리넷을 위한 창작곡 페스티벌 I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는 부산클라리넷콰이어가 마련하는 '클라리넷을 위한 창작곡 페스티벌' 첫 번째 무대.
작곡가 황선영, 김지만, 진소영, 하순봉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 지휘/정우영

15일 클레다 현악4중주단 제9회 정기연주회 'Beethoven & Brahms II'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진과 서영희, 비올리스트 신지현, 첼리스트 김유미로 결성된 클레다 현악4중주단의 무대.
클레다 현악4중주단은 지난 2011년 'Classic never dies! 클래식은 죽지 않는다'라는 모토로, 자극적인 소리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순순한 클래식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결성된 후 8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100여회가 넘는 무대를 통해 현악4중주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현악4중주 작품 59 제1번 '라주모프스키'
브람스/현악4중주 작품 51 제2번

22일 이경아, 김유경 듀오연주회
'풍부한 소리의 울림, 놀라운 음색의 다양성'이란 호평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경아와 섬세한 테크닉과 풍부한 표현력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유경의 듀오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21번
풀랑크/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P.119
야나첵/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JW7/7
라벨/치간느

29일 한국리스트협회 부산경남지부 제10회 정기연주회
헝가리 태생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프란츠 리스트 탄생 200주년을 맞아 리스트의 작품을 연구하고 소개하기 위해 결성된 한국리스트협회 부산경남지부의 10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발라드 제2번 S.171, 단테 소나타, 메피스토 왈츠 제1번 S.514, 교향시 제3번 S.97 '전주곡'
- 해설/박유미
- 피아노/김은정, 김신준, 신정운, 양진경, 박지혜

김성민 플루트 독주회

일 시 5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 의 김성민 010-2825-2974

학구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연주로 호평받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성민 독주회.
경성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에 재학중인 김성민은 학창시절부터 부산챔버오케스트라. 메소드오케스트라. 부산 리더스 플루트오케스트라등과의 협연을 통해 연주 기량을 쌓아왔다.
김성민은 아띠랑스 플루트앙상블 음악감독, 부산리더스플루트오케스트라 트레이너, 아토청소년오케스트라 파트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솔로이스츠플루트앙상블, if플루트앙상블단원으로도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 음악&좋은 만남' 700회 특집 음악회
일상(日常)에 스며든 예술

일 시 5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움
입장료 무료
문 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 음악&좋은 만남' 700회 특집 음악회.
지난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좋은 음악&좋은 만남'은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일상(日常)에 스며든 예술'이라는 주제로 정두환의 강연에 이어 카운터테너 김대경, 류트 연주자 곽승웅의 축하무대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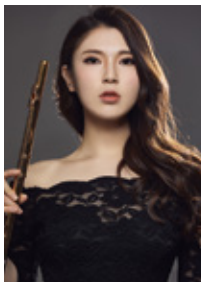
제68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시리즈 IV
말러, 죽음에서 희망으로

일 시 5월 10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시리즈로 마련되는 제68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기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회관으로서는 첫 도전으로 큰 화제를 모은 을숙도문화회관의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시리즈' 네 번째 무대로, 드라마틱한 전개와 충만한 영감, 강렬하고 다채로운 선율로 죽음을 통해 바라본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담은 교향곡 제2번 '부활'을 들려준다.
- 예술감독/김원명
- 지휘/백진현
- 협연/소프라노 이윤경,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 연주/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 합창/부산콘서트콰이어(합창지휘/전상철)

조다은 플루트 리사이틀

일 시 5월 12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 의 조다은 010-8726-3126



부산예술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관현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플루티스트 조다은 독주회.

프로그램
야곱 게이드/탱고 환타지아
가브리엘 포레/경연의 소품
E. Y. 보웬/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120
J. M. 다마스/플루트와 첼로,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와 콘서트
A. 로젠블라트/카르멘 환타지

제47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With Piano

일 시 5월 13일-14일 월-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010-5773-9190

부산지역 음악대학 피아노전공교수들을 주축으로 현재 부산에서 활동중인 330여명의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회장/서숙지) 정기연주회.

13일 탱고와 재즈의 밤
중견 피아니스트 최정윤, 정은정 듀오 무대로, 클래식음악에서 다소 보기 힘든 재즈와 탱고 작품을 들려준다.

14일 Solo와 Duo(2Pianos 4Hands)
브람스를 비롯한 낭만시대 작곡가들의 화려한 기교의 연주를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우수신인피아노콩쿠르 수상자의 축하연주도 만날 수 있다.

2019 영화의전당 5월 마티네콘서트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시즌 2

일 시 5월 14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커피 무료 제공)
문 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영화음악감독 푸디토리움과 함께하는 영화와 영화음악 이야기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두 번째 시즌.
국내 음악계에서 감성음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푸디토리움(김정범)이 진행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세상의 모든 음악,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이라는 테마로 영화 '아마데우스', '불멸의 연인'를 통해 두 거장이 남긴 음악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 연주/뷔에르 앙상블(클라리넷 조성호, 오보에 고관수, 바순 이은호, 혼 주홍진), 이택기(피아노)

소프라노 장은녕 독창회

일 시 5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일반 3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장은녕 010-4413-3628

독일가곡연구회, 벨리씨미 성악연구회,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부산성악가협회 회원, 부산법원 행복합창단 지휘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장은녕 독창회.
신라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 하계 음악 코스, 바인하임 음악 코스를 수료한 장은녕은 그동안 다수 오페라 주역을 비롯해 부산시립교향악단 등 유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피아노/성민주
- 첼로/정준수
- 테너/김지호
- 베이스/박상진

소프라노 박지인 독창회

일 시 5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아름다운 음색의 소유자 소프라노 박지인 독창회.
미국 템플대학교를 우수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오페라 전공 석사과정 및 전문 연주자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박지인은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 Pi Kappa Lamda 콩쿠르 1위를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수많은 오페라 작품에서 주역을 맡아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감동적인 연기로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아온 박지인은 현재 부산성악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피아노/이정원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59회 정기연주회
가족음악회

일 시 5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Campus D(캠퍼스 디) 고촌홀
입장료 초대
문 의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010-3838-4291

지난 2009년 7월 창단된 후 연간 40여회 이상의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온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무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한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로는 처음으로 상근체제로 운영하며 매월 정기공연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무대는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정기 후원인과 가족들을 위한 음악회로 우리 귀에 친숙한 현악 앙상블과 목관악기 협연으로 진행된다.

- 지휘/홍성택

피아니스트 김영실과 함께하는 피아노여행

일 시 5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 의 김영실 피아노 클래스 010-7284-1307

탁월한 음색과 풍부한 음악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영실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스 음악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한 김영실은 현재 앙상블 하모니아,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The Pianissimo 예술학회 회원으로 서울과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연주/윤지현, 윤지예, 성채은, 곽승연, 조수현, 류경하, 차윤민, 김유진, 김시은, 김예진, 오찬민, 유소영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10주년 기념음악회

일 시 5월 19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당일 선착순 배부)
문 의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010-9149-2442

바로크시대를 중심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통합창곡을 연주하는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의 10주년 기념음악회.
이날 무대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바로그전문 연주단체인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르마운 곡인 아르보 패트로의 '스타바트 마테르(Stabat Mater)'를 들려준다.

- 지휘/이성훈
- 소프라노/강혜정
- 메조소프라노/강혜정
- 테너/전병호
- 오르간/권선경
- 하프시코드/아렌트 흐로스펠트
- 바로크 트럼펫/성재창

제13회 소프라노 신정순 제자 향상음악회 아름다운 5월에

일 시 5월 25일 토요일 오후 5: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 의 M&M 성악연구회 010-4434-6605

그동안 600여회가 넘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소프라노 신정순의 제자들이 펼치는 열정 넘치는 무대 '아름다운 5월에'.
그동안 쌓은 실력을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예술감독/고봉수
- 소프라노/고가현 , 김나현, 송세영, 김주연, 김지현, 장지은, 김미선, 고영옥, 최순덕, 이선미, 박정숙, 이진희, 김진, 장성숙
- 테너/조형근
- 피아노/김아영, 조은지

제6회 앙상블 A-ri 기획공연 책 읽어주는 음악회

일 시 5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앙상블 A-ri 010-4666-6268

피아니스트 강인경을 대표로 실력있는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앙상블 A-ri의 여섯 번째 정기연주회.
'책 읽어주는 음악회'라는 부제로 열리는 매년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웰튼 아카데미에 새로 부임해온 국어교사 존 키팅과 그의 제자들의 가슴뭉클한 이야기를 통해 참교육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주요 장면을 비탈리, 그리그, 브람스, 풀랑크, 볼컴, 라벨의 음악으로 들려준다.

- 피아노/강인경
- 바이올린/이미원
- MC/박시현
- 게스트/장윤정(피아노), 조수민(플루트)

제9회 을숙도 소년소녀합창대축제

일 시 5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 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부산 지역의 12개 소년소녀합창단이 화음으로 하나 되는 을숙도 소년소녀합창대축제.

출연팀
부산진구립라온소년소녀합창단, KBS부산어린이합창단, 동구소년소녀합창단, 서구소년소녀합창단 기장리틀싱어즈소년소녀합창단, 사상구소년소녀합창단,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 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북구소년소녀합창단, 남구소년소녀합창단

러브하와이 우쿨렐레 앙상블과 함께하는 2019 메이 플루트 페스티벌 Hello! Flute Hi! OST

일 시 5월 26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 의 프레멘토 010-4554-7777

플루티스트 김인호가 매년 봄 마련하는 메이 플루트 페스티벌 2019년 무대.
플루트와 우쿨렐레 프로연주자들과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합동콘서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지컬의 OST를 플루트오케스트라, 플루트앙상블과 우쿨렐레 앙상블 등 다양한 편성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맘마미아, 하울의 움직이는 성, 베토벤 바이러스, 배트맨 포에버, 오페라의 유령, 넬라판타지 등 수곡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음악과 함께하는 유럽 여행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일 시 5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아트 커뮤니케이터 강사 김성민과 바리톤 허종훈, 클래식기타리스트 이준호, 피아니스트 김경미와 함께 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유럽 여행.

프로그램
이탈리아/나는 거리의 만물박사(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중), 오라 창문으로(모차르트 '돈 조반니' 중)
스페인/알함브라 궁전의 추억(타레가 곡), 투우사의 노래(비제 '카르멘' 중), 베사메무초
영국/잠시동안의 음악(퍼셀 '오디푸스' 중), 대니보이, 불가능한 꿈(뮤지컬 '맨 오브 라만챠' 중)

부산양금앙상블 창단연주회

일 시 5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양금앙상블 010-9715-0916

부산의 양금연주자 발굴과 연주기회 제공 등 양금의 저변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 최초의 양금앙상블인 부산양금앙상블 창단연주회.
양금연구회, 아음회, 서울줄풍류보존회, 경기가야금앙상블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희와 문정원, 전민경, 주은지, 이하빈, 장유진이 양금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별곡, 서공철류 양금산조, 양금 2중주를 위한 '여울', 양금 4중주를 위한 '영남농악-喜喜樂樂'

백동훈 클라리넷 독주회
Clarinet in America

일 시 5월 31일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백동훈 010-3325-8729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음악원과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을 거쳐 현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SC) 대학원에 재학중인 차세대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미국이 낳고 사랑했던 작곡가 번스타인을 비롯해 도날드 마르티노, 로버트 무진스키 등 미국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현대 클라리넷의 진수를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재즈와 블루스 태동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클라리넷의 매력과 미국 클래식의 독창성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피아노/성민주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클라라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공연
나의 클라라

일 시 5월 31일 금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클라라 슈만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리사이틀 부산무대.
지난 2017년 미국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인 선우예권은 이번 무대에서 '나의 클라라'라는 부제로 독일 낭만시대의 위대한 음악가 클라라 슈만과 로베르트 슈만, 요하네스 브람스의 음악을 통해 위대한 세 음악가의 삶과 우정, 사랑을 들려준다.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우리소리 효 콘서트

일 시 5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해운대문화회관이 마련한 '우리소리 효 콘서트'.
우리네 삶을 어루만져 주는 가장 한국적인 소리꾼 장사익과 사물놀이의 거장 김덕수, 국립창극단 단원 서정금,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 김경기, 그리고 영남대학교 국악과 겸임교수, 경상북도립국악단 악장으로 있는 지휘자 김현호가 이끄는 영남국악관현악단이 신명넘치는 소리와 연주로 관객들과 만난다.

- 꽹과리/문상준 • 징, 부쇠/송동운
- 북/방성혁
- 민요/임윤서, 김연숙, 김정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V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발트슈타인'

일 시 6월 1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명확한 해석과 음악적 균형으로 강력한 마력을 뿜어내며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로 호평받는 피아니스트 박정희 리사이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 보스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박정희는 지난 2012년부터 다양한 레퍼토리로 부산과 서울에서 연주회를 열고 있다.
이번 무대는 피아노의 신약 성서인 베토벤 소나타 전곡(32곡) 연주회 다섯 번째 무대로, 베토벤의 초기와 중기 작품을 두루 감상할 수 있다.

연극 | Play

연극 오백에 삼십

일 시 3월 14일(목)-5월 1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30, 6: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돼지빌라에 사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그린 생계형 코미디 연극 '오백에 삼십'은 주거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을 담아내면서 다양한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형 공감 연극이다.
다양한 인물들이 나름 소소한 일상을 살던 이 돼지빌라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주인 아줌마의 죽음이다. 돼지빌라 모든 입주민이 의심을 받는다. 과연 집주인을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

극단 새벽 창단 35주년 레퍼토리 기획공연1
연희극 '어느 골짜기에 관한 논쟁'

일 시 3월 28일(목)-6월 1일(토)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수요일 공연없음) 효로민락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1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극단 새벽 245-5919

'삶의 연극화, 역사의 연극화'를 모토로, 시대의 질곡을 함께 해 온 극단 새벽의 '어느 골짜기에 관한 논쟁'.
지난 1998년 창단멤버이자 현재 상임 극작·연출가인 이성민의 연출로 초연된 '어느 골짜기에 관한 논쟁'은 비무장지대(DMZ) 어느 골짜기를 둘러싼 소유권 논쟁을 통해 한국사회의 남북분단 상황을 들여다보는 작품으로, 영지의 땅에 대한 내력과 소유권 다툼을 제기하는 '틀극', 그리고 사자의 진행으로 드러나는 '극중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극 '러브액츄얼리' 오리지날 시즌2

일 시 4월 5일(금)-6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주)플레이 더 부산 1600-0316

데이트 연극 1위, 커플 선호도 1위, 대학로 흥행열풍의 주역인 로맨틱 코미디극 '러브액츄얼리'.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100일 커플의 풋풋한 연애담으로 시작해 권태기가 시작되는 1,000일을 지나 10년의 사랑을 그린 '러브액츄얼리'는 미묘하게 달라지는 연인의 심리를 꿰뚫으며 세월에 따라 조금씩 변해가는 연인간의 감정변화를 유쾌하게 보여준다.
특히 지난 1990년대를 추억할 수 있는 무대와 다양한 소품 외에도 199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의 노래가 관객들을 추억 속으로 이끈다.

뮤지컬 '라이온 킹' 인터내셔널 투어-부산

일 시 4월 11일(목)-5월 19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2:00, 7:00(4/13일 오후 7:00 1회 공연, 월요일 공연 없음) 드림씨어터
입장료 VIP석 17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문 의 클립서비스(주) 1577-3363

1,700석 이상의 객석 규모를 갖춘 국내 최대, 지역 최초의 초대형 뮤지컬 전용극장 드림씨어터 개관작 '라이온 킹' 인터내셔널 투어 부산공연.
특히 아프리카 소울로 채워진 음악과 언어, 예술과 과학으로 탄생한 무대와 의상, 야생 밀림을 연상시키는 배우들의 탄력적인 몸이 혼연일체된 동물 캐릭터의 표현은 '라이온 킹'만의 특별함으로, 브로드웨이에 가지 않고도 오리지널 무대 스케일과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2019 금정 어린이세상
페인터즈 히어로

일 시 5월 5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30% 할인)
문 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5663

어린이날을 맞아 금정문화회관이 선사하는 3D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환상의 드로잉 공연 '페인터즈 히어로'.
'영웅'을 주제로 마이클 잭슨, 이소룡, 슈퍼맨 등 세기의 영웅들을 무대 위 화폭에 담아내는 '페인터즈 히어로'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지난 세대의 영웅들을 라이브 드로잉으로 재현시키고, 그 과정에서 놀라움과 감탄, 재미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특히 세트를 자유자재로 변형시키는 3D 미디어아트, 반전을 거듭하는 10여 가지 기발한 미술기법, 코믹하고 유쾌한 액션은 세계 최초, 최고 드로잉 공연의 진수를 여과없이 보여준다.

리얼공룡쇼 '포켓다이노'

일 시 5월 5일 일요일 오후 1: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5천원(36개월 이상 입장, 학생 30% 할인)
문 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5663

1억만년 전의 공룡이 살아 눈앞에 펼쳐지는 공룡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국내 최초 리얼공룡쇼 '포켓다이노'.
애니멀 원더랜드 숲속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 공룡세계로 떠나는 호기심 많은 귀여운 소녀 디노와 귀여운 공룡 용용이, 원더랜드의 지킴이 마법사 K의 모험이야기로, 티라노사우르스, 벨로시랩터, 파키케팔로사우르스 등 거대공룡들이 어린이들의 눈앞에서 생생히 재현된다.

뮤지컬 '레미제라블' 탄생 40주년 프랑스 오리지널팀 내한콘서트

일 시 5월 2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6일 일요일 오후 2:00 벡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문 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뮤지컬 '레미제라블' 탄생 4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프랑스 오리지널팀 내한 콘서트.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난 1980년 프랑스 파리에서 초연된 '레미제라블'은 지금까지 총 44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22개의 언어로 공연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뮤지컬 못지 않은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28명의 프랑스 오리지널 출연진과 30인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출연, 실제공연에 가까운 고품격 콘서트로 펼쳐진다.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공연
동화 속 발레 갈라콘서트

일 시 5월 11일 토요일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VIP석 3만원, R석 2만원,S석 1만원, A석 5천원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2014년 설립된 후 발레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부산의 대표 민간 전문 발레단인 부산발레시어터가 마련한 특별한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발레에 관한 다양한 재미있는 이야기에서부터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 우리에게도 친숙한 고전발레와 요한 슈트라우스2세의 경쾌하고 웅장한 왈츠곡을 작품화한 창작발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 예술감독/정성복 ● 해설/이세인
- 출연/김예카테리나, 서주희, 박민지, 박영진, 최수연, 한호정, 윤병훈, 조민관

뮤지컬 '영웅' 10주년 기념공연

일 시 5월 31일 금요일 오후 8:00, 6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문 의 (주)컬쳐박스 02-745-1555,1556

안중근 의사의 삶과 조국 사랑을 그린 창작뮤지컬 '영웅' 10주년 기념공연.
이번 무대에서는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면서도 현시대를 살아가는 관객에게 맞는 울림을 전달하기 위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안중근'역에는 2009년 초연부터 뮤지컬 '영웅'과 함께해 온 정성화,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사랑받는 양준모가 맡아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펼친다.

행사 | Event

시네바움 · 아트홀바움 5월 아카데미

일 시 매주 월-화요일, 금요일 오후 7:00, 목요일 오전 10:00 시네바움·아트홀바움
입장료 1회 1만5천원(한달 수강료 10만원, 31일 기획강좌 2만원)
문 의 시네바움·아트홀바움 010-2774-3455

2일(목), 9일(목), 16일(목), 23일(목), 30일(목) 오전 10:00
무료아카데미_고전의 빛과 향기·지혜와 성찰의 길 '論語'
● 강사/윤산 김수청(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부산대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7일(화) 오후 7:00
책 읽는 오후(2) '인공지능·인간 對 기계'_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 강사/박기헌(지식탐험가, 박기헌치과원장)

13일(월) 오후 7:00
늙어감의 기술
영화, 인생후루츠
● 강사/홍광식(변호사)

무용 | Dance

2019 숲속발레 '거인의 정원'

일 시 5월 4일-5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1층 2만원, 2층 1만원(4세 이상 입장 가능)
문 의 김옥련발레단 626-9486

매년 5월이면 무대에 오르는 국내 최초, 최장기 가족발레인 김옥련발레단의 숲속발레 '거인의 정원'.
창작발레 활성화와 폭넓은 관객개발로 부산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김옥련발레단의 숲속발레는 어린이를 위한 발레공연이 전무했던 지난 2002년, 차별화된 창작가족발레로 첫 선을 보인 후 다양한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2014년 첫 선을 보인 '거인의 정원'은 욕심 많은 거인이 맑고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깨닫는다는 오스카 와일드의 동명의 동화를 창작발레로 탄생시킨 작품이다.

14일(화) 오후 7:00 심진호교수의 예술기행(16) '조지아 오키프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삶과 예술' 영화, 조지아 오키프
● 강사/심진호(신라대 교양과정대학 교수)

20일(월) 오후 7:00 김명우교수의 마음공부(2) '불교의 죽음관_49재(齋)와 중음(中陰)세계·死後 7번 재판받는 과정과 49재'_영화, 신과 함께
● 강사/허암 김명우(철학박사, 불교학자, 동아대 교양교육원 전임교수)

21일(화) 오후 7:00 분청사기, 사랑하지만 잘 모르는, 자랑스런 우리의 도자문화
● 강사/최석태(미술평론가)

27일(월) 오후 7:00 동양의 미학(18) '헝클어진 머리칼'로 근대 국가주의에 저항하다 여류 와카 시인, 요사노 아키코의 인간 선언
● 강사/안수현(문학박사, 문학평론가, 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연구위원)

28일(화) 오후 7:00 우리는 미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_영화, 아메리칸 뷰티
● 강사/이홍종(부경대국제지역학부 교수)

31일(금) 오후 7:00 기획프로그램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현대수학'
● 강사/이승목(디지털앤아날로그 대표이사)

김옥균의 힐링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수강료 12만원(3개월)
문 의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에서 'FM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MBC PD 김옥균(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이 진행하는 클래식음악 해설감상회로, 최신 해외 연주회 실황을 고화질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드볼작 '신세계교향곡', 슈베르트 '로자문데' 서곡
시벨리우스 '바이올린협주곡', 생상스 '피아노협주곡'
베토벤 '교향곡 제4번', 슈만 '피아노협주곡 가단조'
엘가 '첼로협주곡', 비발디 '바순협주곡 마단조'
헨델 '수상음악', '왕궁의 불꽃놀이' 모음곡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따로 또 같이 2 '협주곡의 세계'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7일 스페이스 움)
입장료 무료
문 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 음악 & 좋은 만남'.
지난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좋은음악&좋은만남'은 오는 5월 7일 700회를 맞아 스페이스 움에서 특집 음악회를 개최한다.
7일(700회) 700회 특집 음악회 '일상(日常)에 스며든 예술'
14일(701회) 쇼팽의 협주곡 이야기
21일(702회) 멘델스존의 협주곡 이야기
28일(703회) 이달의 책 읽기 '연필로 쓰기'(김훈 저, 문학동네)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일 시 5월 15일(수) 오후 2:00, 18일(토) 오후 3:00, 27일(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5천원(18일 강좌는 2만원)
문 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15일(수) 오후 2:00 발레가 있는 무대
이국적인 무대 연출과 디베르티스망이 돋보이는 19세기 고전발레의 대표작 '라 바야데르'를 만날 수 있는 '발레가 있는 무대'.
● 강사/ 노영재(무용평론가)

18일(토) 오후 3:00
철학 특강 '니체'
오늘날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말을 언급하지 않고 유의미한 사유를 전개하는 것은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니체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신은 죽었다'는 말을 했고, 또 사람들은 왜 니체의 그런 말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찬미하는가? 마음이 열린 초보자를 위해 쉬운 우리말로 진행되는 철학박사 허경의 니체 입문강좌.
강사 허경은 고려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미셸 푸코와 근대성'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응용문화연구소 및 철학연구소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철학학교 혜윰의 교장으로 있다.
● 강사/허경

27일(월) 오후 7:30 색이 삶을 말하다
'미술의 눈이 된 색채, 화가를 말하다'-마크 로스코 편
추상표현주의 작가로 20세기 현대회화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 러시아 태생의 미국작가인 명상회화의 대가 '마크 로스코(Mark Rothko)'를 만나는 시간.
●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전문가)

제139회 알바트로스 詩낭송콘서트
어버이 사랑 주제 시낭송회

일 시 5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다솜아트홀(대연동 대천유치원 지하)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알바트로스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149

전시 | Display

이소연 개인전 'Black Forest'

일 시 4월 12일(금)-5월 12일(일) 조현화랑 부산
문 의 조현화랑 부산 747-8853

박수이 칠예展

일 시 4월 15일(월)-5월 16일(금) 갤러리 아인
문 의 갤러리 아인 747-2612

'LONG EAR BOB'展

일 시 5월 1일(수)-5월 26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정우범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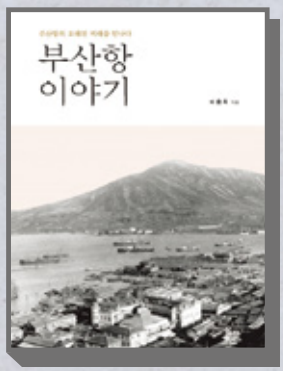
일 시 4월 15일(월)-5월 10일(금)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타워아트갤러리 463-3939

'POP팝'展
-김시연. 지히, 최정유, 유은석

일 시 5월 21(화)-6월 28(금) 갤러리 아인
문 의 갤러리 아인 747-2612

NEW BOOK
새로 나온 책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부산항 이야기

이용득 지음 / 유진북스
342p / 1만 8천원

이용득 부산세관박물관장이 1983년부터 지금까지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충실하게 수집해온 부산, 부산항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냈다. 저자는 누구나 인정하는 '부산항 박사'이고, '부산항 사랑꾼'이며, 부산항을 부산의 문화·역사 콘텐츠 황금어장으로 가꾼 주역이다. 1983년에 부산세관에서 10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할 때, 저자가 실무를 맡았다. 세관의 발전은 부산항 발전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부산항에 관한 사료를 모으면서 연구를 시작했고, 부산항 연구는 부산 역사 연구로 이어졌다. 책자 발간이 완성된 이후에 저자가 수집한 많은 사료들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세관전시관을 만들게 되고, 2001년 11월 부산세관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저자가 관장을 맡게 됐다. 이 책은 국제신문을 중심으로 여러 매체에 실었던 글, 방송과 강연에서 했던 부산항 역사·문화 이야기를 한 권으로 엮고 있다. 저자는 수집 연구한 사료를 엄밀하게 다룬다. 근거를 최대한 밝히고 있어 미덥고, 간명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어 흥미롭다. 부산항과 부산의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책이다.

부끄러버서 할 말도 없는데

김길자 외 지음 / 호밀밭
265p / 1만 6천원

우리나라 근대수리조선의 1번지인 부산 영도 깡깡이마을에서 일평생을 보내신 여섯 분의 어르신들의 자서전이 책 한 권에 담겼다. 깡깡이예술마을사업단이 진행한 어르신들의 자서전 프로젝트에는 김길자, 김부연, 김순연, 박송엽, 서만선, 조창래 여섯 분이 참여했다. 영도 대평동 출신의 정우련 소설가가 매주 어르신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쓸 수 있도록 이끌었다. 두레밥상에 모여 앉아 정을 나누는 것처럼 자서전동아리방에 둘러 앉아 있으면 이야기가 끝이 없었다. 어르신들 모두 살아온 세월이 만만치 않아 도저히 중간에서 끊을 수가 없었단다. 어르신들은 지난 시간을 더듬어 '나와 내 집안의 연대표'도 만들어보고,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시기별로 글감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써왔다.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글이 책으로 나온 것이다. 삶의 이야기, 지나온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옛사진, 직접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 시화작품을 보노라면 마치 인생극장을 보는 기분이 든다. 맞춤법이 좀 서투를지는 몰라도 진실하고 솔직한 글, 소박한 그림과 삐뚤삐뚤한 글자가 가슴 뭉클하게 다가온다.

한국 산사의 단청세계

노재학 지음 / 미술문화
440p / 3만 원

사진전시회 <한국산사의 아름다움과 문양세계 展> 전시 도록을 책으로 만나본다. 이 책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며 진행된 전국 7개 시·도 순회사진전과 함께 기획된 책이다. 이 책은 일반 독자들을 위한 예술 교양서이자 전시 관람객을 위한 전시 도록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찰 7곳은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보은 법주사, 해남 대흥사, 안동 봉정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다. 7세기 이후 한국 불교의 전통을 오늘날까지 이어온 살아 있는 종합승원이라는 점에 대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책은 7개 사찰 중 5곳을 포함한 한국의 산사 23곳을 선정하여 전통사찰의 아름다움과 단청으로 장엄한 문양세계를 소개한다. 산사의 단청벽화들은 뛰어난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녔음에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노재학 사진작가는 한국 산사의 아름다움을 국내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단청문양의 의미들을 세상 밖으로 안내하기 위해 공들여 촬영했다. 한국 산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 '노만 파킨슨'展 단체관람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노만 파킨슨'展 단체관람이 지난 4월 18일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으로 열리고 있는 '노만 파킨슨'展은 20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사진작가 노만 파킨슨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로, 지난 2월 15일 전시 오픈 후 부산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수기 회장을 비롯해 변원탄 부회장 등 40여명의 후원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전시 관람에 앞서 부산시민회관의 극장과 시설을 둘러보는 백스테이지 투어를 진행했다. 한편, 전시관람 후에는 후원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교류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2018년 1월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발족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회장 최수기)는 그동안 지속적인 후원회원 모집을 통해 후원활동 및 기부문화 조성에 힘써오고 있다.

그랜드자연요양병원 정기회원 단체가입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그랜드자연요양병원(원장 이재일)이 올해도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했다.

그랜드자연요양병원은 자연속의 문화와 음악이 함께 있는 명품 요양병원으로, 병원가족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매년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해오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할인혜택과 부대서비스로 문화생활품의 필수품으로 사랑받으면서 매년 단체가입이 늘고 있다.

5월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맞춤공연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이 5월에도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5월 3일 부산시립무용단의 시민들을 위한 야외마당축제 '2019 시민뜨락축제'(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를 시작으로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이 부산광역시청, 노인종합복지관, 학교, 지하철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5월 3일(금) 12:20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_무용단 '2019 시민뜨락축제'
5월 3일(금) 12:40 부산광역시청 로비_합창단 '시민행복콘서트'
5월 8일(수) 10: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_합창단 '어버이날 행사'
5월 10일(금) 12:30 부산광역시청 로비_무용단 '시민행복콘서트'
5월 10일(금) 13:30 해운대공업고등학교_교향악단
5월 10일(금) 13:30 자성대노인종합복지관_국악관현악단
5월 10일(금) 15:20 주감중학교_교향악단
5월 10일(금) 20:00 놀이마루 운동장_소년소녀합창단
5월 15일(수) 09:50 영도초등학교_청소년교향악단
5월 15일(수) 13:30 낙동고등학교_국악관현악단
5월 24일(금) 08:50 모산초등학교_교향악단
5월 24일(금) 10:40 봉래초등학교_교향악단
5월 24일(금) 12:20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_교향악단 '2019 시민뜨락축제'
5월 30일(목) 10:40 대사초등학교 강당-무용단
5월 30일(목) 13:45 동주중학교_합창단
5월 31일(금) 18:30 '문화가 흐르는 도시철도 공연'
⇨ 시청역(교향악단), 사상역(국악관현악단), 센텀역(합창단), 연산역(무용단), 서면역(청소년교향악단)

Busan Opera Week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19 부산오페라 Week'참가작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부산지역의 오페라 성장과 오페라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지역 오페라단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분	공연일자	공연장소	비고
오페라 전막	10월 5일(토)-6일(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일 2회
오페라 인 콘서트	9월 30일(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일 1회
오페라 갈라 콘서트	10월 1일(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일 1회

| 선정 방향

부산오페라 발전에 기여할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작품 선정

| 지원자격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기재되어 있는 오페라단
- 최근 5년 이내 전문공연장에서 오페라 관련 공연제작 및 실적이 있는 오페라단

| 지원내용

- 제작비 일부 지원
  ① 오페라 전막(2일 2회 이상) : 금1억원
  ② 오페라 인 콘서트(1회) : 금5천만원
  ③ 오페라 갈라 콘서트(1회) : 금3천만원
- 홍보지원 (통합 홍보 : TV-SOPT 제작 및 송출, 인쇄물 및 현수막)
- 공연별로 복수지원 가능하나 1개 단체 1개 부문 선정·지원을 원칙으로 함
- 공연진행에 따른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등은 별도 납부하여야 함

※ 2017-2018 부산오페라 Week에 선정된 단체는 동일부문 지원 불가
※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지원 불가(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예정 / 10월 11일~13일)

| 접수기간 및 방법

- 공지기간 : 2019년 4월 11일(목) ~ 5월 7일(화)
- 접수기간 : 2019년 5월 8일(수) ~ 5월 10일(금), 17:00까지 ※마감기한 이내 접수 분에 한함(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대연동) (재)부산문화회관 2층 공연기획팀]

| 제출서류

- 공통 제출 : 지원 신청서 양식 1부(첨부파일 참고),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선택 제출 : 언론보도자료, 홍보인쇄물, 사진자료 등

| 결과발표

2019년 5월 중(예정)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문의처

(재)부산문화회관 공연기획팀 051-607-6051
※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t) 게시판 참조

부산시립교향악단

제75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협연자 모집

연주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18일(수)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응시 자격 및 모집 부문

- 응시 자격
  - 원서접수시 초·중·고·대학교(인제대 포함) 등 부산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부산지역에 거주하며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자

  ※ 단, 2016년 (제72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이후 협연한 자는 응시 불가
- 모집 부문 : 피아노, 현·관·마림바
- 모집 인원 : 부문에 관계없이 5명(초·중학생 1~5명 / 고·대학생 1~5명)

접 수

- 기간 : 2019년 5월 7일(화)~17일(금) 10:00~17:00
- 제출서류 : 응시원서(홈페이지 다운로드) 1부,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 1부, 주민등록표(홈스쿨링자에 한함) 1부
- 접수처 : 이메일 cyhyjy@bscc.or.kr

  ※ 메일 발송후 접수 완료여부 반드시 유선전화 확인 요망

전 형

- 전형일시 : 2019년 5월 23일(목)
  - 세부일정 5월 20일(월) 홈페이지 공지
- 장소 :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습실
- 전형과목 : 지정곡 中 1곡 선택 ⇨ 지정곡은 홈페이지 참조

  ※ 유의사항

  · 카덴차가 있는 곡은 반드시 연주 · 무반주 및 암보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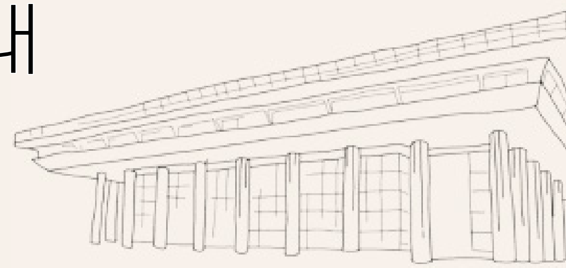
  · 마림바는 교향악단 악기 사용

기 타

- 합격자 발표 : 2019년 5월 27일(월) 10:00 홈페이지 공고 (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서양음악팀 교향악단 담당(607-3111~3)

S I G N - U P S H E E T O F O R D I N A R Y S E S S I O N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회원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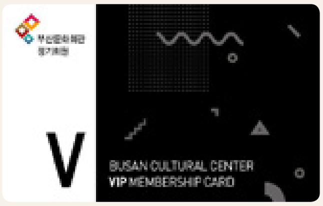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6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할인(회원카드 제시 시 50%)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추첨,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등



VIP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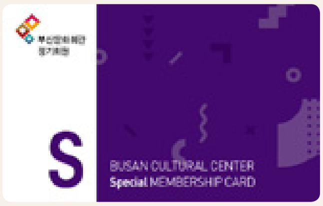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에서 예약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신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지정된 기획공연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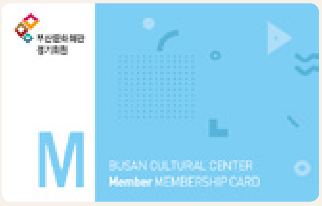
SPECIAL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신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MEMBER

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 무용단 | 극단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 부신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입장료의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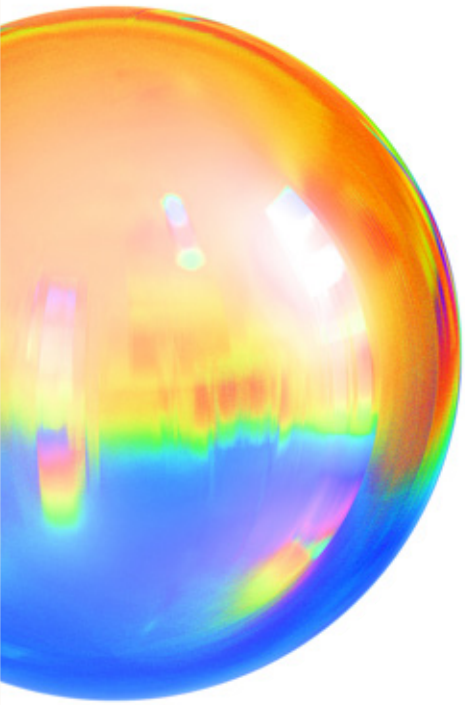
가입 문의 :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TEL. 051)607-6074~6 FAX. 051)607-607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제외)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9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19 노자와 베토벤 '고진감래(苦進感來)' 예약중

3월 30일(토), 6월 22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80매)

철학과 클래식의 만남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노자와 베토벤' 2019년 무대.

현대무용협동조합 '가을운동회' [종료]

4월 1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에 한해 1인 2매, 선착순 40매)

대한민국 최고 현대무용가들이 펼치는 컨템포러리 댄싱스타들의 무대.

2019 마티네 콘서트 예약중

4월 24일(수), 5월 22일(수), 6월 26일(수), 8월 28일(수)
10월 2일(수), 11월 20일(수)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마티네 콘서트' 2019년 무대.

세계적인 아트서커스 BACKBONE [종료]

5월 1일(수) 오후 2:30, 2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R석에 한해 1인 2매, 회당 선착순 30매)

경이로운 곡예와 따뜻한 위트, 환상적인 무대예술의 완벽한 조화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세계적인 아트서커스단 BACKBONE의 무대.

유라시아 챔버 뮤직 '실내악의 초대' [종료]

5월 27일(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1인 2매에 한해 선착순 20매)

세계 속의 한국 최정상 음악가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연극 '인형의 집, Part 2' [종료]

6월 1일(토) 오후 3:00,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1인 2매에 한해 회당 선착순 20매)

2017년 토니 어워드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작품성을 인정받은, 집으로 돌아온 '노라'의 이야기.

연극 '신의 아그네스' 예약중

6월 20일(목)–21일(금) 오후 7:30, 22일(토) 오후 3:00, 6:0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1인 2매에 한해 회당 선착순 20매)

앵콜공연으로 관객들을 다시 찾아온 존 필마이어의 작품.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홍보마케팅팀(607-6074~6)

VIP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 명단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례약국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2019년 4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호 게재)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총장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 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 J 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청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승모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신명희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상현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이경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헌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성임	엘가 대표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정일	SK증권(주) 이사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영희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중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충영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진경옥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허 준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현임숙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since 1973

154th 정기연주회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제5대 **김수현** 수석지휘자 취임연주회

New Wave

부산을 찾아온 New Wave

Tantum Ergo / Missa Sancti Martini
한국 자장가 / 가고파 / 꽃타령
Love changes everything / Beautiful City
Can't Help Falling in Love / When You Believe

특별출연 오르간 조현우 / 쥬빌레 클라라넷앙상블

2019. 5. 31(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균일 1,000원(자유석) / 예매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 문의 051. 607. 3117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지 대연역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30M "7번가피자"앞 → 문화회관 주차장 •출발시간 | 문화회관행 | 월~금 18:30 / 19:00(공연 있는 날에 한함) | 대연역행 | 공연종료 후(1회 운행)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BPO CHAMBER MUSIC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9. 5. 3 FRI 7:30PM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드보르작 · 현악 4중주 제12번, 「아메리카」
Dvořák · String Quartet No.12 in F major, "American", Op.96
Allegro ma non troppo, Lento, Molto vivace, Finale.Vivace ma non troppo
서은아(바이올린) 우소라(바이올린) 홍영선(비올라) 김판수(첼로)

그랑발 · 우울한 왈츠
Grandval · Valse Mélancolique

피아졸라 · 「탱고의 역사」 中 '카페 1930'
Piazzolla · 'Café 1930' from "Histoire du Tango"
이화영(플루트) 김영립(하프)

브람스 · 클라리넷 5중주
Brahms · Clarinet Quintet in B minor, Op.115
Allegro, Adagio, Andantino, Con moto
임홍균(바이올린) 이은옥(바이올린) 이성호(비올라) 이일세(첼로) 장재혁(클라리넷)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074~5(정기회원)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문화예술인패스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 발 지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연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2회 운행)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HUMAN VOICE

제551회 정기연주회

목소리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9. 5. 17 FRI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모차르트 ·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Mozart · Sinfonia Concertante

차이콥스키 ·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Tchaikovsky ·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윤이상 · 화염 속의 천사와 에필로그
Isang Yun · Engel in Flammen mit Epilog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비올라 김상진 Sang Jin Kim, Viola
바이올린 임홍균 Hong-Kyun Lim, Violin
여창가객 박민희 Minhee Park, Gagok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074~5(정기회원)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2회 운행)

발 달 린

꼬등어

GGO DEUNG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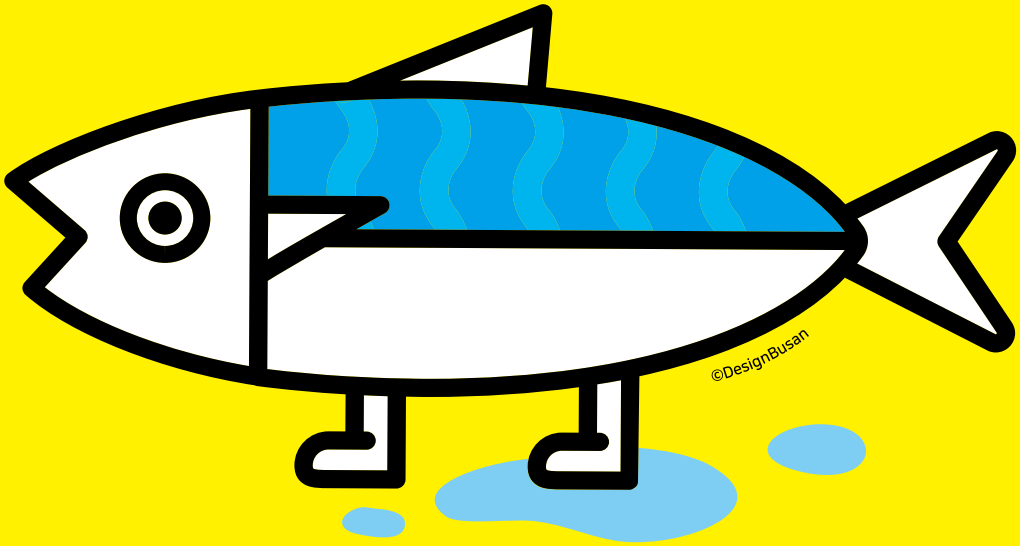
GOOD DESIGN 산업자원부선정

it Award

FACEBOOK

INSTAGRAM

호기심으로 똘똘 뭉친 두다리로 여행을 즐기는 **부산 대표 캐릭터**



*꼬등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고등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 입니다.

www.designivy.com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65번길 90, 101호 **디자인부산** **[T]**051)936.1216 **[E]**info@designbusan.kr **[H]**www.designivy.com

KBRAIN POWER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 우수디자인전문회사 Best Design Company in Korea | KOREA DESIGN AWARD |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 reddot award | iF DESIGN AWARD | K-ESP 기술전문기업 | 인재육성중소기업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5

오페라 이야기 Ⅱ

오전에 펼쳐지는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 유쾌한 해설로 명품콘서트를 선보입니다.

2019. 5. 22. (수)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이동신** 소프라노 **왕기헌** 테너 **전병호** 바리톤 **김종표** 베이스 **박상진** 해설 **손지현**

G. Donizetti
도니제티
(1797 - 1848)

[선착순 이벤트]
음료와 빵을
무료로 드립니다.

사랑의 묘약
Opera <LÕElisir dÕAmore>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Quanto è bella, quanto è cara

옛날에 파리스가가 한것처럼
Come Paride vezzoso

여러분 들어보게요
Udite. udite o rustici

남몰래 흐르는 눈물
Una furtiva lagrima

받으세요 당신은 이제 자유에요
Prendi, per me sei libero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Opera <Lucia di Lammermoor>

잔인하고도 비통한 열망이여
Cruda, funesta smania

주위는 고요한 침묵속에 잠기고
Regnava nel silenzio

나를 부르는 부드러운 속삭임
Il dolce suono mi colpi do sua voce

내 조상의 무덤이여
Tombe degli avi mie

돈 파스콸레
Opera <Don Pasquale>

그 눈길이 기사의 마음을 사로잡아
Quel guardo il cavaliere

하늘의 천사와 같이
Bella siccome un angelo

4월의 밤은 얼마나 달콤한지
Come gentil la notte a mezzo April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주 최.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 부산일보사 협 찬. SHINSEGAE |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문 의. 051) 607-6000 / 6075(정기회원) 전석 10,000원

| 할인안내 | 50% 장애우 (1~3급 동반1인, 4~6급 본인) / 국가 · 독립유공자 본인 /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20% 마티네 패키지 / 단체 20명 이상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등급별 매수제한 있음) / 초 · 중 · 고 · 대학생 / 다자녀 가족 (자녀 3명이상 등재가족) /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본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본 프로그램 및 연주자는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BUSAN WORLD MUSIC FESTA 2019

부산 월드뮤직 페스타

2019 부산월드뮤직페스타
5.16.(목)~17.(금) 19:30 총 2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5월 16일(목) LA YEGROS 아르헨티나, 프랑스
MYDY RABYCAD 체코
5월 17일(금) KALASCIMA 이탈리아
LORNOAR 카메룬

BUSAN WORLD MUSIC FESTA 2019

부산시민회관
BUSAN CITIZEN'S HALL